

2015 WINTER VOL.040

WINTER THEME 빛(光)에 반하다

하나의 빛이 다양한 색깔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다. 가장 빛나는 계절 겨울, 한 해의 끝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섬광 그 안에 다양한 색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보다. Are you curious what is happening in Korea now? Then please tune the radio to tbs eFM 101.3 at noon. I, Ian Foote, am a news anchor and reporter on local and international news about society, economy, culture and others in English. Every day, I gather news and write stories that matters to our listeners in Seoul. Over the years, I have come to know Korea well and have adopted it as my second home. It is a privilege to help other citizens learn about the important stories that shape this great country.



lan Foote

방송학을 전공한 인재다. 원고만 읽는 아나운서가 아닌 스를 전하는 동시에 해설을 덧붙일 수 있는 뉴스앵커를 꿈꾸는 그는 3년전부터 tbs (eFM News)의 라디오 방송 진행을 맡고 있다. 영원한 팬, 한국인 아내와 친구들의 열성적인 지지 속에 한국의 진짜 모습과 목소리를 전해주기 위해 현장을 누비는 그는 진정한 한국대표이다.

추운 겨울날 함께하는 공존이 삶에 따뜻함을 더합니다

On a bitter cold winter day, we stay warm by being together 〈共ZOME〉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마무리 되는 계절 겨울이 왔습니다. 1년 중 가장 빛이 적은 겨울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것들만이 보이는 시기이겠지요.

매년 이 시기가 되면 항상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끝나버린 것만 같은 아쉬움에 지난 일 년을 어떻게 보내 왔는지 반추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또 내년에는 좀 더 빛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늘 잊지 않습니다.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는 다가오는 2016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지금보다 더욱 친절하 고 성숙한 출입국 · 외국인정책을 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 다시 보고 싶은 한국, 다시 만나고 싶은 한국인, 다시 즐기고 싶은 한국 문화가 되고, '세계인이 다시 오고 싶은 대한민국'이 되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끝으로 2016년에 독자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Greetings to all readers!

Winter, having the least daylight, is the season when we can see only what twinkles most brightly.

At this time every year, we reflect on the bygone year with feeling that time flies so fast that the year ends right after the year begins. In addition, we never forget to make resolutions to do our utmost to shine more brilliantly in the upcoming year. The New Year 2016 is the beginning of 'Visit Korea Year 2016-2018'. The KIS will endeavor to formulate and implement even kinder and maturer immigration policies. If we keep trying our best to make Korea better, Korea will become the country visitors want to visit again and filled with Koreans whom foreigners wish to meet again and great culture people hope to enjoy again. Our efforts will be the guiding light for the Republic of Korea in becoming "The Korea you want to visit again". For this reason, I ask for your cooperation.

May good luck and happiness be yours in 2016.

Commissioner,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Jin, Kyung-Joon 진경준 11/11/16/

ZONE 2015 WINTER No.40







<mark>발행일</mark> 2015년 12월 | <mark>발행처</mark>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Tel 02-2110-4019 |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 기획 및 디자인 (주)더쎄븐파트너스 Tel 02-2038-7700

〈共ZONE〉을 앱북에서도 만나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업데이트 됩니다.



출입국관리의 현대화에서부터 글로벌 수준까지의 발전 방향

- 전문가 기고
- 12 출입국 정책 하나를 위한 모두를 위한 '사회통합정책'
- 출입국 스타
- 06 출입국 25시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

대한민국으로 교집합하는 다양한 사람들

- 04 통계로 보는 출입국
- 02 출입국 NEWS

INSIDE KIS

34 **共ZONE** 마당

모든 이들이 한 길을 한마음으로 걸었던 시간을 포착했다. '제5회 한마음걷기축제'

30 LIVE ON KOREA

28 출입국 Q&A

조금은 낯선, 조금은 어려운 한국의 주거 제도에 관하여

- 26 발견의 미학
- 24 명장면 국어사전 셈법과 관련된 단어의 다양한 의미와 쓰임새
- 한국에서 크리스마스 씰을 발행한 '셔우드 홀(Sherwood Hall)

폐결핵 퇴치를 위하여 한국 최초 결핵요양원을 설립하고, 결핵치료 자금마련을 위해

- 23 사(史)적인 시간
- 20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 '같이'의 '가치'를 말하다
- 18 THE K-FOOD 집밥의 대명사 '장아찌'

태권도 유단자로 한국을 찾은 사연부터 소셜테이너 기질 그리고 진심을 담은 배우가 되고자 하는 노력 등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배우 파비앙의 이야기

14 겨울날의 초대석

유난히 눈부시고 맑은 겨울이면 하늘과 강의 경계가 무너져 신비로운 풍광을

08 뿌리 깊은 여행

담장 너머

04 EDITOR'S MESSAGE

tbs교통방송 〈eFM News〉의 라디오 방송 앵커, lan Foote 마이크 앞에서 전하는 그의 진솔한 이야기

02 나도 한국대표

CONTENTS



일곱 색깔의 벼룩시장

 기숙사
 학교는 에피소드가 참 다양하다. 열혈 청춘들이 모여 있

 기에 수도원이나 수녀원과는 다른 열정의 꽃들이 수시로

피어난다.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때로는 상당히 공들인 이벤 트가 은밀하게 진행되어 그것이 며칠 동안 학교를 끌고 가는 즐거운 에너지로 작동되기도 한다.

그러나 늘 이렇게 즐거운 일들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쉽게 풀 수 없는 애매한 문제들이 느닷없이 발생하는 게 기숙사다. 아마 대표적인 것이 심야에 슬그머 니 출현했다 사라지는 귀신 이야기이다. 기숙사에 처음 들어온 신입생들은 선 배들의 귀신 이야기 때문에 밤늦게 화장실 출입을 못 하기까지 한다. 시간이 지나면 과장된 이야기라는 것을 알지만,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또다시 귀신들 이 슬쩍 출현한다. 그것도 나름의 주기가 있는 모양이다.

진짜 애매한 문제는 따로 있다. 어느 기숙사나 물건이 종종 사라진다. 어떨 때 는 돈이 없어지기도 하는데, 이게 귀신도 곡할 지경인 경우가 많다. 분실인지 도난인지 분간할 수가 없는 것이다. 누구 말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이나 수도원 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법이나 기도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중의 난제로 여겨지고, 그로 인해 오히려 법과 기도의 소중함이 더 부각된다는 견해도 있

다고 한다. 실제 우리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해밀학교의 여름이 시작될 무렵 우리에게도 유령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물건 그렇다고 당장의 해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여러 사람이 사는 곳에서 물건이 이 사라지는가 하면 돈까지 없어지기도 했다. 워낙 활동량이 많고 기숙사에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경우도 그렇다. 그렇다고 매번 주변 사람을 의심하거나 감 지지고 볶으며 살아가니까 물건이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깊숙한 곳에 들어가 시할 수도 없다.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살기 힘든 기도 한다. 방학맞이 대청소를 하면 꼭 그런 것들이 '나 여기 있다'하며 몇 가지 곳이 되어버린다. 가 나오기도 하나 어떤 경우는 정말 감쪽같이 증발해 버린다. 여러 친구들이 여러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살고 있는 해밀학교는 더욱 그렇 물건을 잃어버린 당사자는 화도 나고 더러는 마음에 상처를 입기까지 한다. 다. 며칠 동안 회의를 거듭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충분히 드러내고 다른 친구 서로 신경을 쓰면 한두 달은 무사히 지나가지만 이런 물건과 돈의 증발 사건이 들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엉뚱하고 재미난 발상을 하게 되었고, 벼룩시장은 완벽하게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는 아마도 유령과 귀신 때문이리라.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이 아닌 서로를 위로하고 이해하고 동시에 자신 어쨌거나 며칠 동안 회의를 거듭하면서 서로 조심하자, 남의 물건에 손대지 을 확장시키는 멋진 축제가 된 것이다. 실제로 벼룩시장 이후 기숙사는 더 활 말자. 심지어는 폐쇄 회로 설치를 해서 범인을 잡자는 과격한 제안까지 등장 기차고 웃음이 넘치는 곳이 되었다. 아마도 유령과 귀신들이 학생들의 깔깔거 하지만 사라진 물건이 갑자기 나타날 리는 없었다. 소모적 회의를 공전하다가 리는 웃음과 밝은 기운 때문에 출입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리라.



윤영소 그는…

2013년 산과 강이 조화를 이룬 홍천의 아름답고 작은 마을 명동리에 개소한 해밀학교는 개성과 활력이 넘치는 청춘들의 배움터를 표방하는 국내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위한 대안학교 이다. 그리고 해밀학교의 학교장 윤영소, 그는 오늘도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꿈꾼다.

어느 친구가 재미있는 제안을 해왔다. 물건이 없어진 것인지, 사라진 것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서로를 의심하고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을 지속하 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해결의 아이디어는 '무지개 바 자회'라는 것이었다. 갖고 있는 물품 중에서 한두 가지를 내놓고 필요한 사람 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바자회 수익금을 물건을 분실한 학생에게 돌려주자 는 것이었다. 장소는 우리의 가장 아늑한 공간인 도서실로 정해졌고 학생회가 나서서 물건을 모집하여 목록을 정하고 바자회 공간을 꾸미기로 했다. 선생님 들은 반신반의했다. 물품이 부족할 수도 있고 혹여 별 내용 없이 그저 문제를 덮기 위한 일회성 행사로 끝이 나지는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햇살이 해밀교정 구석구석을 뿌려주던 유월의 어느 수요일, 점심을 먹고 난 후 벼룩시장을 위해 도서실에 들어서니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다. 곳곳에 아 기자기하고 재미난 물품이 가득했다. 해밀학교가 태국, 베트남, 독일, 일본, 러시아. 중국, 필리핀 등의 이주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많아서인지 형형색색의 물건들이 가득했다. 어떤 물품은 경쟁이 치열해서 별도의 선발전(가위바위보 게임)을 거쳐야 했다. 팔다 남은 물건은 학교에 기증해서 다음 축제 벼룩시장 때 사용하기로 했다.

Donggurae Village

There is a very small but very beautiful village

in Hanam-myeon, Hwacheon-gun. It creates a

wonderful sight just because it is located in the

place as there is a high mountain like a folding

screen in front of the village and Bukhangang

(River) calmly flows in the front of the mountain. It's

includes the meaning which symbolizes 'seeds' and

Donggurae Village. 'Donggurae', the village name

originated from the word, 'Donggeuran (round)',

'flowers', the beginning of everything. As you feel

from the name of the village, this place is famous

for a wild flower complex. The native wild flowers

which reach 50 species including bellflowers and

inhabit clean areas as the plants which naturally

grow up not being artificially influenced. Among

them, Donggurae Village has a wonderful natural

environment that wildflowers can grow up. It has

doubled its value and meaning in that it preserves

and increases Korean native wildflower seeds

as you can easily see various wild flowers which

cannot easily be found in other places. There are

various experience spaces in the village with the wild

flower complex. You can have various experiences

in the small village as there are the wild flower tea

experience space that you can smell and taste wild

flowers and Hwacheon Handicraft Workshop that

you can experience ceramics.

Learn and connect tradition

'Hwacheon Hanok School'

lyreflowers in the large area of 3,305m2. Wild flowers



For Gangwon-do with Hwacheonforest. Therefore. do have usually solved their diet

물안개피는날 강원도화천

굽이진 산자락을 돌고 돌아 비로소 겨울의 화천을 마주할 수 있었다. 풍광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는 투명한 물빛은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게 했고 수면 위로 지그시 내려앉은 물안개는 이곳을 더욱 속내를 알 수 없는 정취로 물들였다. 그리고, 그곳에 자리한 역사가 남긴 흔적은 시간의 일면을 엿보는 이에게도 슬픔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가장 고요한 겨울을 나고 있는 이곳 화천에서 잠시 멈추어본다. 한 해를 떠나보내고 다시 맞이하는 찰나의 구간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덧대어지는 역사를 뒤로하고서. 그리고 발견한다. 태초의 시간을, 결국엔 사람을, 궁극의 희망을. 글 김초록 사진 이영균 사진제공 화천군청

Hwacheon Hanok School was established to bring up Korean carpenters for the purpose of succession to traditional culture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building techniques of traditional Hanok that has disappeared by Jeong, Gap-cheol, the former governor of Hwacheon-gun. As it claims to support fostering master craftsmen rather than simple technicians as the top institution with the building techniques of traditional Hanok in Korea, many people has visited this school to be taught in this place every year. It has operated the program that general people can be interested in and experience traditional Hanok in a short space of time as well as special courses including the carpenters who build houses or furniture and the carpenters who build small furniture or stationery. As Hanoks built by graduates are located around the school, they remind you of a Hanok village. So you would better taste a mood of Hanok walking around this place.

When you visit Gangwondo 'Rice with Thistle'

gun, about 80% of the gross area is the people in Gangwon-



getting food from the forest from old times. Food from mountains mostly means wild herbs growing in mountains. As they are well-assorted and very nutritious and their scent or quality are more excellent than those of other areas due to the natural environment which has not been damaged, many people are looking for wild herb food when they visit Gangwon-do. Among them, Rice with Thistle, the representative native food of Gangwon-do, is boiled rice made with Thistle that grows naturally 700 meters above sea level of Taebaeksan Mountain. Rice is boiled with Thistle on it and people eat it by mixing boiled rice with spicy soy sauce. This food scent is really excellent. It is as unique and sweet as it creates an illusion that you are in the middle of in a forest for a moment. When you eat it by mixing boiled rice with salty and tasty spicy soy sauce including chili pepper and ground sesame mixed with salt, nature comes inside your mouth with it. For Rice with Thistle, healthy efficiency as well as the good taste are excellent. It prevents adult diseases as it is rich in protein, calcium, and vitamin. And it is effective for lowering blood cholesterol and improving digestive functions as it contains a lot of fibre.

Walk on water embracing the sky and mountain 'To the Forest Bridge'



When you move toward the upper part of Hwacheon putting Bukhangang on the right, you can find a long bridge which is connected above the river. This bridge called 'To the Forest Bridge' is about 3.3km long above water of Bukhangang starting from land. And when you approach the end, you can enter the forest like the bridge name. You have a wonderful feeling of serenity when you walk on the low bridge spread above gentle waves making the mountain which stands heavily your friend. As the surface of the water that waves rarely rise reflects the unlimited expanse of the sky and wide mountain like a mirror, you cannot guess the depth. So when you look at it, you seem to fall into an abyss. To the Forest Bridge is a corner of 'Sanso 100ri-gil' for bikers who run toward the forest. Therefore, this area might be is the calmest look of winter of Hwacheon having diverse looks except for the occasion when you bump into bikers. It is the perfect place for enjoying being lost in meditation if you dress warm in winter.

Seeking a fish from a tree, 'Forest Arts School'

Forest Arts School, the place which claims to support 'seeking a fish from a tree (ĐĐĐĐ)' was made by a couple of artists, Carpenter Lee, Jeongin and Ecology Picture Artist Lee, Jae-eun by attaching each piece to a school. They resolutely settled down in the small school which was closed and the present space was created as they have built it by themselves like erecting a tower. It is a working and display space of the couple of artists.



And it's also the complex art space which are opened to make many people experience this place. 'Yuánmùqiúyú', the four-character Chinese idiom which means 'seeking a fish from a tree', is used when trying to say a slim chance of success because of noncoincidence of purposes and means or hardships due to it. However, Artist Lee, Jeongin seeks fishes climbing a mountain personally. But he says that efforts and will to try to seek in spite of the hardships are the root of life. He creates his works making fishes subject matters and wood major materials. And this place, Forest Arts School, is filled with various stories created by them. If you are curious about their stories which have drawn the world through fishes, a symbol of Hwacheon, let's visit this place. Forest Art Coffee Shop where you can taste the coffee directly made by this couple can also add be another reason to visit this place.

This cannot be said to be a simple part 'Kkeomeok Bridge'



Can you imagine that the endless flow of evacuees fleeing from the war across this narrow bridge? Kkeomeok Bridge has quietly guarded this place as the people who travel by car can easily pass it unless they carefully look at it. And it got a lot of grief to make you stop and look back in a way of history which has continued to be added. Soon after it was born in 1945 being built, this bridge became the passage of the people who desperately left to survive as the Korean war broke out. Bullet wounds have been left all over the bridge as they seem to prove scenes of the time. And there are many minds of the people who passed this narrow bridge and that you dare not guess. We cannot simply say that this bridge is just a part of history. It was because it was everything of the time to the people who passed Kkeomeok Bridge risking their life. Kkeomeok Bridge has been evaluated as important historical materials in the study on bridge history because it has well been preserved since it was built. The passage of it was allowed a few years ago. But people can't use it anymore because of its deterioration.

From a symbol of pain to a sign of peace 'Paroho Lake'



The original name of Paroho Lake, the man-made lake built to invade the continent by Japan in 1944, is Hwacheon Lake. In this place that was a ferocious battlefield of the Korean War, the Korean army obtained 38,000 captives of the communist Chinese army during a day in a battle that broke out then. And Lee, Seung-man, the first President, named it 'Paroho Lake' which means the lake to drive out the barbarians to celebrate the victory. When water was drained to build Peace Dam in 1987, dolmens and prehistoric relics were excavated at the bottom of Paroho Lake. Paroho Lake is catching people's eyes with the superb natural landscape. However, it is the reality that you cannot look at it as beautiful scenery because it includes history that Hwacheon had to suffer due to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The wounds of the war were engraved upon Paroho Lake. As a result, it is close to the boundary line dividing the South and the North. When you get on Mulbitnuriho, a ferry, on Paroho Quay, it the ferry moves toward Peace Dam. After sailing through gentle waves, it will take you to the Peace Dam where you can take a look at Peace Bell made with a wish for world peace beyond peace

on Korean peninsula. You arrive at a symbol of hope leaving from the one of pain. Paroho Lake's beautiful scenery with wet fogs is the reason that brings many people to Hwacheon. Paroho Lake's beautiful scenery played a role in giving Hwacheon a nickname of a city of wet fogs. In the future, we hope Paroho Lake will be a beautiful symbol of new history beyond the past and bring more people to it as an assembly place of peace.

Hwacheon Paroho National Security Exhibition Hall



Hwacheon was a ferocious battlefield of the Korean War. Then, Hwacheon was used as an outpost of Chuncheon in the beginning of the war as it was under the North. As Operation Chromite of Korean Army and the UN forces was successful, it was recaptured by the Korean Army because of they had to advance north. After that, this became a hotbed of battles as the Korean Army closed with the North Korean People's Arm several times in this place. You may have a look at the records of the battles of those days in detail with various historical materials at Paroho National Security Exhibition Hall. You can spend quality time at this exhibition hall because it is enough to check residents' lives, the weapons which were actually used, and soldiers' articles. You can enjoy a magnificent sight of Paroho Lake because there is an observatory when you go up a small mountain behind the building.

Hwacheon Sancheoneo Ice Festival

Wonders

A festival makes winter of Hwacheon which can be the calmest place in Korea noisy for a moment. It is the Sancheoneo Ice Festival that is the representative Korean festival selec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is preferred by many foreigners. The Sancheoneo Ice Festival is very famous as it was on TV as the Seven







of the World Winter by CNN. And it makes tens of thousands of people visit Hwacheon every year. Masou salmon fishing done on ice in midwinter makes you feel the secret fishing methods which beat the bitter cold of winter. Tourists who are not afraid of the cold enjoy the winter festival very much challenging experiences to catch masou salmons with their bare hands. Night fishing done under the night sky that it looks as if the stars were falling upon makes beautiful memories so that you can remember the trip to Hwacheon. Various types of winter sports including sledding and bobsleighing are ready for you. And Hwacheon's food is also an element pleasing tourists. Hwacheon Sancheoneo Ice Festival is arranged and held in the whole areas of Hwacheon-eup, Hwacheon-gun and three myeons for 23 days from January 9 to January 31.

Masou salmon Sashimi



If you caught masou salmons in the cold after you have come to far Hwacheon, you cannot miss the joy of tasting them. Masou salmon Sashimi is ready in the place that the event is held during the Sancheoneo Ice Festival so that you can taste them. And you can eat fresh masou salmon Sashimi when you go to the downtown area of Hwacheon and Paroho Quay even when the festival is not held. Masou salmons are Korean native freshwater fishes inhabit clear valleys only of the first class water with high dissolved oxygen as Salmonidae, Salmoniformes. Silver scales which emits light

even in the dark and parrmark with spear patterns give masou salmons a nickname of the queen of valleys. Masou salmons are known as haute cuisine because it is difficult to manage them due to the picky inhabiting environment. As it's the clean fishes which inhabit the first class water only, they smell lesser fishy and the chewy texture and fresh taste are excellent. As they are rich in amino acid, essential fatty acid, and vitamin, they are perfect healthy food that is enough to beat the severe winter.

Thinking of the world and peace 'Peace Bell'



When you go up to Peace Dam's site, you can find an about 5m-long huge bell. It was named 'Peace Bell' which was made by collecting empty cartridges from the troubled areas in the world in 2008 and carries meanings of peace, life, and origin. Pigeon models, the emblems of peace, are decorated on the top of the bell. Among them, there is a pigeon not having any wing. Originally, 10,000 bells of world peace had been created, but a bell's wings were separated with the wish for the reunification of Korea and 9,999 bells having wings were created. And it was designed to have a plan that the separated two wings will be connected to the bell on the day when reunification will be realized so that the bells of world peace to complete it. The bell of world peace is not a model. but having practical value. So you can experience striking the bell when you pay the experience fee of 500won. Visitors ring the bell longing for the unification of the North and

the South, world peace, and their own peace. Messages of peace from celebrities of various countries of the world are decorated by wall painting around the bell. You can

feel that everyone has the same dream even though the words used by them and the way they talk when saying peace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while you are reading each one slowly.

When you go down a little bit by car passing the tunnel after watching Peace Bell, you will find a Peace Bell park. There are various types of bells and symbolic icons sent from various countries of the world in this place. You would better watch them. 'Yesterday's pain and today's passion bring you to tomorrow's safe peace.', the message that you can see when you arrive at the park entrance, seems to tell you about the Peace Bell and Park's roles. It is not crowded because it's winter. Nevertheless, this place should not be silent because of this reason.

Ask sensibility. Find sensibility. 'Sensibility Village'



People often forget or disregard sensibility because they lead busy lives again and again. So people go on trips to regain sensibility that they lost. And here in Hwacheon, an optimized place for regaining sensibility that you lost is located. It's the very sensibility village. Oisoo Gallery in the sensibility village opened in 2012 as part of creating sensibility themed literature park in Hwacheon-gun, is exhibiting Novelist Lee Oisoo's literary works, art works, and collections. The sensibility Village that you can arrive at when you reach a deep valley in Hwacheon surrounded by range after range of

mountains stimulates your minds as soon as you get off the parking lot. The beginning of a series of poem stones starting with a sentence, "You don't go when there is a way. You go and the way is made." is strong. When you walk along the path leading to the gallery, it reminds you of something that you have forgotten for a moment. When you slowly look around the gallery that you meet in the end of the path and the exhibits, your heart is filled with dense warmth

Hwacheon MAP

어죽탕

이름만 들으면 어떤 음식인지 헷갈릴 법도 하지만 추어 탕 개념을 생각하면 된다. 어죽탕은 여러 민물고기를 갈 아서 부추, 버섯, 배추 등의 야채와 함께 푹 끓여낸 음 식이다. 화천의 깨끗한 물고기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여느 어죽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영양이 풍부하 며 걸쭉하고 뜨끈한 국물은 추위에 언 몸을 녹이기에 충 분하다.

강원 화천군 간동면 파로호로 91 **화천어죽탕** 033)442-5544





화천시티투어

화천군에서는 관광객이 버스를 타고 편리하게 화천의 명소를 돌아볼 수 있도록 화천시티투어를 운영 중에 있 다. 주말코스 1개와 평일코스 2개로 나뉘어져 있고 들 리는 명소의 수는 8개로 동일하며 춘천역에서 출발하 여 춘천역에서 마무리하는 코스로 계획되어 있다. 매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영하는 주말코스 성인 요금은 19,000원이며 소인(4~13세)요금은 10,000원이다. 시티투어 신청은 화천군 홈페이지에서 날짜 확인 후에 진행할 수 있으며 투어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화천군 관광 홈페이지 http://tour.ihc.go.kr



물빛누리호

파로호 선착장에 가면 커다란 배가 기다리고 있다. 이 배는 파로호에서 시작해 평화의 댐으로 약 1시간여에 걸쳐 향하는 물빛누리호, 파로호가 화천여행에서 꼭 들 려야 하는 필수 관광지인 만큼 관광객들이 이곳을 온전 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하려고 2015년 4월에 배는 첫 출 항했다. 평일에는 30인 이상 예약제로 운항하며 토 일요일, 법정휴일에는 10인 이상 운항한다.



강원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예약 및 문의 033)440-2732~3

산소100리길

100세까지 장수하라는 의미가 담긴 산소100리 길은 화천생활체육공원에서 출발하여 화천댐, 붕어섬, 연꽃 단지, 미륵바위 등으로 이어지는 42,2km에 이르는 자 전거 코스이다. 소요시간은 3시간 안팎으로 화천천 수 로길을 모두 돌아볼 수 있어 짧은 시간 동안 알차게 화 천을 여행할 수 있다. 자전거 대여소가 마련되어 있어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으나 12월 초에서 2월 말에는 겨 울철 휴무이기에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이용해야 한다. 문의 033)440-2557



화천 Map





앱북 〈共ZONE〉에서 동영상을 통해 파비앙을

직접 만나보세요.

프로필

필모그래피

1987년 10월 30일생

2010 SBS (제중원) 원장님 역 연극 〈블라인드〉 슈텐버그 역

2011 CF 모토로라 아트릭스

2015 MBC 〈헬로 이방인〉

CF 삼성갤럭시, 교촌치킨

2012 MBC (더 킹 투 하츠) 찰리 역 2014 KBS 〈하이스쿨 :러브온〉 필립 역

MBC 〈나 혼자 산다〉

CF KT올레, 귀뚜라미 보일러

Mnet 〈MPD's MV코멘터리〉

Ecole Jean Perimony, Paris 연극영화과 태권도 4단, 익스트림 마샬아트, 수영

파비앙과 유독 인연이 많은 독도에 다시 다녀오셨다고요?

2016년 2월에 방송될 이리랑TV (The East Sea Expedition) 녹화가 지난주에 있었어요. 동해지역을 직접 다녀와 맛 체험도 하고, 여행지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첫 번째 장소가 울릉도와 독도였어요. 독도 분쟁은 한국에 와서야 알게 됐 는데 프랑스에서도 독일과 영토분쟁이 있어서 독도 분쟁이 남 일 같지 않게 느껴졌나 봐요. 독도 분쟁에 대해 관심이 많아 요. 240여 명의 학생이 모여 독도에 대해 공부하는 '독도아카데미'라는 단체 활동을 한 적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국 인들과 함께 생각해 보자고 SNS를 통해 환기시키기도 했죠. 뱃멀미와 거친 파도 등 많은 장해물이 있고. 고작 30분만 허 락되는 짧은 입도가 아쉽지만 그럼에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친구들에게 꼭 다녀와 볼 만한 곳이라고 추천해요.

5살 때 부모님 권유로 태권도를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그때 처음 본 태극기가 마음에 들었다는 이야기가 참 재미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키도 작고, 연약했어요, 체력이 약할까봐 걱정됐던 부모님이 저를 태권도장으로 데려가셨어요. 도장에 들 어가니까 중앙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는데 보는 순간, 진짜 예쁜 거예요, 유럽 국가들의 국기는 색깔만 다르고 비슷하거든 요. 태극기는 색도 예쁘고 그림 같았어요. 그때부터 한국에 관심을 갖고 좋아하게 됐고, 태극기 사랑도 시작됐어요. 제가 여행 갈 때 태극기를 가지고 다니는 건. 제 SNS 팔로워라면 다 아실 거예요.

허약했던 소년이 프랑스 태권도 국가대표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게 태권도를 사사해 주신 첫 사범님은 프랑스인이었는데요. 정말 열의 넘치는 분이었어요. 1년에 꼭 한번은 한국을 방문해서 새로운 기술을 전수받고.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셨죠. 더불어 한국 소식도 많이 들려주셔서 어릴 때부터 한국이란 나라가 낯설지 않았어요. 제 친구들은 일본 애니메이션 〈드래곤볼〉에 빠져 있어서 한국보다 일본에 대한 관 심이 높았죠. 또 그때만 해도 프랑스에 태권도가 많이 보급되지 않던 시절이라 다른 친구들에게 한국은 머나먼 별나라 이야기였을 거예요. 10살 때까지 매일 태권도를 수련할 정도로 재미에 푹 빠져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즈음 사범님께서 제게서 가능성을 보시곤 개별 훈련을 권했고, 13살부터 주니어 대회에 나가고 이후 국가대표팀 훈련에 합류하게 됐어 요. 한국 무술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드라마. 영화. 그리고 문화로 관심이 넓혀지게 됐죠.

한국에 정착하기 전에 방문 기회가 있었다고요.

'태권소년'을 꿈꿨던 제게 한국은 늘 가고 싶은 곳이었죠. 하지만 경제적, 물리적 거리 때문에 꿈만 꾸다가 기회가 딱 한 번 찾아왔어요. 고1 국가대표 시절. 한국에서 열린 태권도 대회의 초청을 받아 드디어 한국을 방문할 수 있었는데 그만 일주일 전에 바이러스에 걸려서 입출국이 불가능했어요. 저를 제외하고 한국에 다녀온 친구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 다. 그때가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었거든요! 한국의 응원문화와 열정을 눈으로 보고 온 친구들이 모두 '멋진 나라' 라고 열광하더군요. 정말 아쉬웠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선 바로 한국에 가겠다고 결심했죠

글 **황지혜** 사진 김성재

래피를 차곡차곡 완성해 온, 반전 매력의 소유자란 사실

은 그리 잘 알려지지 않았다. 다음은 지금껏, 우리가 알

지 못했던 파비앙의 이야기다.

최근 방송에서 얼굴을 자주 보지 못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해에는 방송일로 너무 바빴는데, 2015년에는 좀 여유가 생겼죠, 친구도 자주 만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 고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신기하게(?) 프랑스 여행을 다녀왔죠. 프랑스인이지만 가보지 못한 지방이 많았는데 그 곳에서 힐링 하면서 푹 쉬다 왔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간 방송활동 때문에 미뤄뒀던 분야에도 도전해 봤어요. 의상 디자이너인 친구를 도와 패션 작업에도 참여했고, 2016년에 프랑스에서 출간 예정인 요리책 원고도 정리했죠, 2016년 '한-불수교 130주년'의 해를 맞이해 이를 기념하기 위한 프랑스 대사관 주최 행사에도 초청받아 참석하고요.



올해로 한국살이 7년 차입니다. 성공적인 정착까지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언어 문제가 가장 컸죠. 말을 못하면 친구를 사귀기 도 힘들고 당장 일을 구하기도 어려우니까요. 또 저 처럼 한국에 정착하고 싶은 외국인으로선 방을 구하 는 일도 큰일이었어요. 다달이 나가는 월세가 부담 스럽지만 그렇다고 목돈이 필요한 전세를 선택하기 도 쉽진 않죠. 대출을 받기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 니까요.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출입국사무소 에 자주 방문했어요. 입국 초기. 모델 활동을 할 때 는 3개월에 한 번씩 비자를 갱신해야 했죠. 그때만 해도 한국어는 서툴지, 서류는 복잡하지, 대기시간 은 길지, 사무소에 가기 일주일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최근 2~3년 전부터 놀라울 정도 로 달라진 것 같아요. 업무도 지역별로 세분화되어 서 대기시간도 줄고. 직원들이 신경 써주시는 부분 이 눈에 보일 정도로 향상됐어요. 이제 사무소 가는 일이 편해졌어요.

예능프로그램에서 '파비표 메뉴'를 소개할 정도로 요리 솜씨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부끄러워요. 요리 솜씨랄 것도 없어요. 그저 자취 남으로 혼자 산 지 오래돼서, 본능적으로 먹고살기 위해 제 입맛에 맞게 요리한 것 뿐이죠. 된장찌개에 소시지를 넣기도 하고요, 국적불명의 퓨전요리예 요. 어떤 분들은 제가 프랑스인이니까 바게트 같은 빵을 많이 먹을 거로 생각하시는데 전 국물 있는 걸 좋이해요. 그래서 매일 아침밥은 꼭 해먹어요. 국이 나 찌개도 있어야 하고요. 부지런하죠?

프랑스에서 한식 관련 책을 펴낼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출간을 기획하신 계기나 이유가 있나요?

자취 요리를 하다 보니 레시피를 인터넷으로 자주 검색하는데, 불어로 된 레시피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서 알고 있는 레시피를 하나둘 적어놓고 모은 것이 어느새 80개 정도 됐어요. 음식을 만들 때마다 사진도 찍어놨고요. 지금 프랑스에선 한식의 인기가 대단한데요, 더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한식을 조리할 수 있도록 책을 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준비했죠. 출판사에서도 반응이 좋아요. 지금 진행 속도라면 2016년에는 출간될 것 같아요.

'미식의 나라' 프랑스에서 한식이 통할까요? 한식의 매력을 꼽자면?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일식이 트렌드였다면 지 금 프랑스에서는 한식의 인기가 대단해요. 한식은 볶음, 국과 찌개, 탕, 찜, 구이 등 조리법과 재료 활용이 다양해요. 또 밥을 같이 먹는 식문화가 있 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프랑스나 유럽의 경 우, 식탁에서도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국에서는 식구나 친구들과 함께 먹는 반찬도 있 고, 부대찌개같이 한데 끓여서 나누어 먹는 문화 가 있죠. 한국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한국에 있는 시간이 늘수록 정겨운 식 문화 때문에 한식이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더 많 은 프랑스 사람들에게 한식과 식문화의 매력을 함 께 알리는 '한식 전도사'가 되고 싶어요.

제2의 꿈, 배우의 꿈을 한국에서 이룬 사실이 신기합니다.

태권도 못지않게 오랫동안 꿈꿔온 게 '배우'예요. 프 랑스, 홍콩, 일본에서 모델활동을 하기도 했지만 배 우의 꿈을 포기할 순 없었어요. 프랑스에선 대학교 에서 예술 분야를 배울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고등 학교때부터 연극 아카데미에 다니며 연기 공부를 했 죠. 그리고 인연이 깊은 한국에 와서 데뷔를 했어 요. 배우의 꿈을 이룰 수만 있다면 프랑스든. 한국 이든 제게는 상관없었어요. 카메오로 출연한 경험 도 있지만 정식 데뷔는 2010년 SBS 드라마 (제중 원〉이죠. 돌이켜보면 무모할 만큼의 도전이었어요. 연기 욕심은 많았는데 한국에 온 지 1년 반 정도 됐 던 때라 한국어를 전혀 못하던 때였어요. 또 제 나 이가 23살이었는데, 40대의 나이 많은 외국인 선 교사(의사) 역할을 맡아서 부담도 컸고, 분장도 고 생스러웠죠. 제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는 소중 한 기회였고. 첫 배역이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짧지 않은 연기생활 중 잊지 못할 추억이 있다면?

'배우'하면 대학로죠. 무대에 오르는 걸 가장 좋아 해요. 2010년에 연극 〈블라인드〉에 출연 당시 배

태원도 그럼요



운 게 참 많아요. 대사 한마디 하지 않아도, 제가 등 장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 웃음이 터지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한 장면에서 외국인이 등장하니 신기하 고, 황당한 거죠.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것도 사 람들은 좋아하더라고요. 1년간 극단 사람들과 한 식구처럼 지내며 배우의 자질과 관객과 소통하는 법 을 배웠어요. 그때 한국말도 많이 늘었고요.

존경하는 한국 배우가 있나요?

정말 많은데 한 분만 꼽자면 이순재 선생님이요. 한 국에 처음 왔을 때 TV에서 〈거침없이 하이킥〉이 방 영 중이었는데 말을 알아듣지 못해도 연기가 워낙 실감 나서 재미있었어요. 이후에도 이순재 선생님 이 나오시는 드라마와 영화, 예능까지 챙겨봤어요. 연기야 말이 필요 없고, 귀여운 면모도 있으셔서 더 애정이 가요. 팔순이 넘은 연세에도 연기 열정이 넘 치는 모습은 꼭 닮고 싶은 부분이에요.

파비앙이 해보고 싶은 배역이나 캐릭터가 있나요?

외국인이다 보니 역할이 한정되어 있죠. 그럼에도 제가 하고 싶은 배역을 생각해본다면 지금까지 태 권도 기술을 쓴 적이 없어요. 태권도 유단자나 무도 인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화려한 제 발차기 기술을 보여주려면 액션이어야겠죠? 멜로도 좋은데….

태권도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나요?

그럼요, 태권도는 제가 한국에 온 이유인데요. 한

국에 살면서 태권도를 하지 않으면 제 삶의 모순처 럼 느껴져요. 다만 선수 시절만큼 운동을 하는 건 아니죠. 앞으로 배우로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기 에 더욱 건강하고, 자기관리가 필요한데 태권도만 한 운동이 없는 것 같아요. 제 몸만 허락한다면 평 생 해야 할 운동이죠.

앞으로 활동 계획을 들려주세요.

2016년은 '한불 수교 130년'의 특별한 해로, 이 를 기념하기 위한 '2015~2016년 한불 상호 교류 의 해' 관련 행사가 열립니다. 양국의 교류 확대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취지의 행사라면 적극적으 로 참여해 프랑스와 한국을 연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방송과 연기 활동을 활발하게 할 예정입니다. 방송인 파비앙 보다 '배우 파비앙'의 모습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난해 설 특집 예능 프로그램 촬영으로 떡국을 직접 끓여먹는 파비앙을 본 적이 있다. 인터뷰 중 그 모습이 생각이나 올해도 떡국을 직접 만들어 먹을지 물었더니 "떡국을 먹어야 한 살 나이를 먹 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먹어야죠"라고 대답한 파 비앙. 한국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외국 인을 제법 만나봐 왔지만 이처럼 '한국사람'같이 생각하는 이는 드물었다. 지금까지의 꾸준함으 로, 진실함으로 한국을 사랑해주기를. 그 속에서 피어날 배우 파비앙의 꿈과 활약을 응원한다.

명사의 KEYWORD [태권도(Taekwondo)]

This internationally certified sports was created in Korea and has become globalized. Taekwondo is the marital arts which attack or defense by using hands and feet any time and anywhere without any weapons and gives greater significance in considering right persons as important through being equipped mentally as the purpose of building up healthy bodies rather than attack. That's why Fabien started Taekwondo at the hands of his parents when he was five years old. A distinct difference between Taekwondo and other martial arts is powerful and various types of footwork. They are also Fabien's specialty. Febien who was active as a national team in Taekwondo Junior of France has a fourth-degree black belt. Fabien says that Taekwondo was very helpful for self-management and stress reduction as he has steadily done Taekwondo even while he was active in model and acting.





부모 품을 떠나면 무엇보다 그리운 것은 엄마가 해주던 집밥이라는 만국 공통의 진리. 국경을 넘어서는 진리를 탄생 케 하는 '집밥'이란 개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문에 들어서면 나를 맞아주는 따스한 온기, 식탁 위에 둘러앉은 가족의 도란함 등 집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각자가 품고 있는 풍경과 감정 그리고 그리움이다. 그리고 아이러니하 게도 집밥 하면 휘황찬란한 요리가 아닌, 갓 지은 하얀 쌀밥 위에 입맛 돌게 하는 새콤달콤한 장아찌 얹어 먹던 소박 한 식탁이 생각난다. 글 김초록 새진 이명글 장소 계통마나님(02-3675-8688)



다문화강연의 강사로 또 다문화일보의 기자로 너무나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랑 씨, 최근에는 한 방송사의 특 집 프로그램을 위해 미안마로 봉사활동도 다녀왔다. 그녀에게 굳이 한국생활의 정착기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는 없 었다. 그녀가 우즈베키스탄을 떠나 한국에 온 지 6년, 그 사이에 딸아이를 두 명이나 길러내며 이같이 자신의 적성 에 맞는 다양한 활동으로 꾸려나가는 삶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방증하는 셈이니 말이다. 사랑 씨와 그녀의 여섯 살 난 딸 연아가 손을 맞잡고 도심 속 관광지인 북촌에 나타났다. 몇 해 전부터 내 · 외국인을 막론하고 많은 이들의 발걸음 을 불러들이는 관광명소인 북촌에는 고즈넉한 한옥마을과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가게들이 즐비해 있다. 그 리고 사랑 씨와 연아가 오랜만의 서울 나들이를 북촌으로 택한 이유는, 바로 이곳에 있는 우리네 소박한 식탁의 주인 공 장아찌 때문이다.

계절의 차이가 뚜렷한 한국은 철마다 생산되는 채소 또한 가지각색이다. 이같이 철에 나는 채소를 오랫동안 먹을 요량 으로 간장, 고추장, 된장 등에 장기간 저장하여 발효시킨 음식을 '장아찌'라 한다. 채소가 나지 않는 계절에 식탁의 주요 반찬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낸 이 음식은 하우스 재배 기술의 발달과 냉장고의 등장으로 인해 존재의 필요성이 많 이 사라졌다. 그러나 여전히 장아찌가 한국인이 좋아하는 반찬으로 손에 꼽히는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주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과 장아찌가 숙성되었을 때 선사하는 순식간에 입맛을 돌게 만드는 특유의 감칠맛 여기에 더불어 근래 들어 조명 받는 발효식품의 건강상 효험을 들 수 있겠다.

평소 간장에 담긴 깻잎장아찌와 오이장아찌를 즐겨먹는다는 그녀는 눈앞에 놓인 고추장을 기본으로 한 매 실장아찌가 주는 상큼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평소에는 잘 접할 수 없었던 쑥, 명이, 가죽 등 으로 만든 장아찌를 맛보고 난 뒤에는 음식이 주는 고유한 맛에 사로잡힌 듯 하얀 쌀 밥 위에 장아찌 하나 올려 연아 입에 넣어주고는 그녀 또한 밥 먹는데 열중한 모습을 보였다. "장아찌가 한국 사람들이 집을 떠나면 그리워하는 집밥 음식 중 하나라고 하니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 요. 저 또한 본국을 떠난 사람으로서 집밥을 늘 그리워하는 사람 중 하나이니까, 이 음식을 생각하는 기분 에 공감이 간다고 해야 할까요."

옆에 앉아있던 부끄러움이 많은 소녀 연아는 가죽장아찌가 주재료가 된 비빔밥을 말없이 먹었다. 연신 이 어지는 숟가락행에 사랑 씨는 연아에게 맛있는지 물었고 연아는 말없이 다시 한번 비빔밥을 입에 가져가며 행동으로 대답을 들려줬다. 내 아이가 밥 잘 먹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또 있을까. 사랑 씨 또한 이런 연 아를 흐뭇하게 지켜봤다.

"연아는 한국음식을 잘 먹어요. 저는 한국음식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지금은 요리까지 곧 잘 해요. 갈비탕, 삼계탕 등 보양식이 제 전문이죠. 제일 자신 있는 음식은 미역국이에요, 제일 처음 배운 한 국음식이자 가장 자주 만드는 국이기도 해요. 이제 연아가 자라서 집을 떠나면 생각하는 집밥은 미역국이 되지 않을까요. 아, 미역국에 밥 한 숟갈 말아 그 위에 매실장아찌를 올려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네요."



우즈베키스탄의 장아찌

Salted and pickled cucumbers and tomatoes

우즈베키스탄의 식문화는 유럽문화권 나라의 식문화와 거의 비슷하다. 빵을 주식으로 하고 주로 고기를 이용한 요리로 식사를 한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에는 반찬이라고 할 만한 요리가 없는데 유일한 반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토마토오이피클 이다. 식초에 아주 빨갛고 잘 익은 작은 토마토와 잘게 썬 오이를 주재료로 넣고 올리브잎과 고수를 첨가해 발효한 이 음식은 한국의 김치와 장아찌같이 우즈베키스탄인들이 밥을 먹을 때 항상 곁들여 먹는 음식이다. 또한 김장처럼 한번에 많은 양을 만들어 오랫동안 숙성시킨 뒤 먹는 발효저장음식으로 가히 우즈베키스탄의 장아찌라 불릴 만하다.

대한민국 '같이'의 '가치'를 말하다

Korea tells about 'value' of 'together'

일반적으로 우리는 두 개 이상의 것이 하나가 되어, 독립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의 합 보다 이상의 결과를 내는 것을 '시너지 효과'라 말 한다. 함께해서 좋은 것, 함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자 할 때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여럿이 같이했을 때 만들어지는 것 중에 수치로는 절대로 설명이 불가한 것이 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고 불릴 때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따스함, 그리고 '우리'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기적같은 것들 말이다. '같이'의 모습이 변하고 '가치'의 속성 또한 변하지만 같이하는 것이 가치있음은 영원하기에, 대한민국 '같이'의 '가치'를 말하다.

글 **김초록** 참조 **〈한국인의 문화유전자, 주영하 외〉**



'우리'라는 이름을 가진 공동체

외국인 학생이 어학당에서 한국어 말하기를 연습하고 있다. "내 엄마는…"이 라고 입을 뗀 외국인 학생의 말은 시작하자마자 선생님의 제지로 중단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선생님의 조언은 한국어로는 '내 엄마'가 아닌, '우리 엄마'라 고 해야 어색하지 않다는 것. 학생은 쉽게 의문이 풀리지 않는 얼굴로 우리 엄 마라고 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몇 차례 되물었고 선생님 또한 쉽게 우리라고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아마도 한국사람 대부분이 '우리'라는 단어를 특별한 자각 없이 당연하게 사용 할 것이다. '우리 집', '우리 학교' 등, 내가 소유하고 있는 또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개념을 수식할 때 한국인들은 1인칭인 '나'를 덧붙이기보다는 복수형태인 '우리'를 덧붙여 설명한다. 대체 언제부터 그리고 무슨 연유로 한국인들에게 '우리'라는 언어적 습관이 생겨난 것일까.

'우리'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한국의 공동체, 그 의식의 기원을 찾아 역사의 줄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기원전의 단군으로부터 시작된다. 한겨레의 맨 처 음이 되는 조상, 즉 지금 한국인이라는 줄기의 맨 꼭대기에는 '단군'이라는 시 조가 있다. 그리고 그 시조 아래 탄생한 배달겨레라는 이름을 가진 공동체가 역사의 출발점이 된다. 이 공동체는 특별히 단일민족이라는 사상을 중심으로 더욱 강력한 하나의 공동체를 영위해 왔다. 시대에 따라 지금의 한반도는 여 러 나라로 분립되어 그 맥을 이어오기는 했지만 나라가 달라도 사람들은 한민 족(韓民族)이라는 역사적 미명 아래 강력하게 군집하였다. 여러 개로 분열되 어 있던 나라가 통일되고, 한 나라를 구성하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특성은 그 자체로 여타의 나라 또는 민족과 구별되는 요소로 작용했으며 이 같은 특성은 곧 국민의 자부심이었다. 이는 거시적 역사구조 속에서 하나의 정신적 상징으 로서 수많은 개개인을 연결하는 사상적 결집의 역할을 했으며 이는 더 나아가 나라의 정통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기까지에 이르렀다. 단순히 같은 지역에서 생활하는 하나의 군집이 이 같은 사상적 결집으로 인해 공동체로 발전되고 이를 통해 이른바 공동체 정신이 탄생하였다. 이 같은 공 동체 정신은 사람들의 내밀한 의식구조 속 한 자리를 차지하였고 생활을 영유 하는 중에 이 같은 정신이 발현되는 장면은 종종 목격된다. 그리고 그 수많은 실례 중에 하나가 '우리'라는 단어를 사물 곳곳에 붙이고 입에 올리는 것이라 할수있다.

Community with a name called 'us'

A foreign student is practicing speaking Korean in a language오랜 시간 동안 공동체생활에 길들여진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함께 하기를 좋school. The words that he/she begins to say 'my mom is...' is아한다. 식사 시간에 누군가가 집에 방문했을 때 집주인은 방문객을 그냥 돌려stopped by a restraining teacher. And the teachers advises that it is보내는 법이 없다. 밥 먹고 가라는 주인의 요청에 손님은 한사코 거절하지만not strange when he/she says 'our mon', not 'my mom'. The student'식탁에 숟가락만 하나 더 놓으면 된다'는 주인의 말에 손님은 끝내 식사자리에

several times asks the reason why he/she should say 'our mon' with the face that the question is not easily answered. And the teacher cannot explain the definite answer to him/her.

Maybe, most Koreans will naturally use the word, 'we' or 'us' without any special self-awareness.

Koreans usually explain their ownership or the concept that they belong to by adding a plural form, 'we' or 'our', rather than the first person word, 'I' or 'my' like 'our houses', 'our school', etc. When and how did on earth linguistic habit of 'us' by Koreans happen?

Tracking back to history to find the origin of the Korean community with 'us', the concept, it starts from Dangun of B.C. There is a progenitor called 'Dangun' on the top of Koreans, the first ancestor of a Korean race. And the community with the name of the Korean people created under the progenitor becomes of the starting point of history. This community has led a stronger community focusing on a single-race nation. The Korean Peninsula has continued the legacy being divided into several countries but it has strongly trooped together under the pretense of the Korean race (ĐĐĐ) even though countrie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 characteristics that the disunited countries are reunited and compose one country became the factor distinguished from other countries or races and the people's self-esteem. This played the role of the ideological combination of many individuals as a mental symbol in the macroscopic historic structure and furthermore became the criterion which judged the country's legitimacy.

One group which had simply lived in the same area was developed into a community due to the ideological combination like this and so-called team spirit was created. Team spirit like this held a seat in people's deep conscious structure. And this spirit is often shown while people lead their lives. One example of many ones can be saying 'we' or 'our' in many cases of things.

어울림이 만들어내는 대한민국



⁶⁶ 두 가지 이상의 것이 서로 잘 조화된다는 뜻의 어울림은 사회 곳곳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

동참한다. 최근에는 덜하지만 이렇듯 밥 먹는 것에서부터 공부. 취미 등 생활 전반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과 함께 경험하며 이를 공유하는 것을 좋아하는 한국인의 특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한국인의 특성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어울림은 하나의 문화로까지 해석 할 수 있다 두 가지 이상의 것이 서로 잘 조화되다는 뜻의 어울림은 사회 곳곳 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지나간 역사에서 살펴보자면 수많은 열강이 나 라를 위협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강력한 어울림을 통해 나라를 지 키고자 수난에 맞서 고난을 극복해왔다. 또한 근대에 발생한 몇 차례의 경제적 위기를 마주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함께 하는 정신은 더욱 빛을 발했다. 상생, 즉 함께 살고자 갖가지 캠페인이 펼쳐져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 은 끈끈하게 이어졌다. 그리고 아픔을 나누고 상처를 치료했으며 이를 통해 또 한 번의 고비를 넘기고 지금의 대한민국에 이르렀다.

어울림이 만들어내는 포용, 협동, 배려, 나눔 등 여러 아름다운 얼굴은 수차례 의 국난을 이겨낼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2002년 월드컵과 같은 문화적 행 사 등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이들이 하나로 아우러지는 놀라 운 광경을 만들어내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어울림은 사람과 시물 그리고 분야를 초월한다. 세계화로 인해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유입된 현 재. 다양한 요소를 융합하되 한국이라는 절대적 명제로 전체를 아우르는 한국 인의 어울림 미학이 가미된 미디어와 예술적 콘텐츠는 전 세계로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변혁의 시대,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가 존립하는 가운데, 너도나도 기지를 주장하 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중심을 잃지 않으려 애를 쓰고 있다. 그리고 독선을 타 기 보다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 하기를 택하고. 이 같은 노력은 언제 나 현재 진행 중이다.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어울림의 힘은 대한민국을 굳건하 게 만든 일등 공신이다. 그리고 세계회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서 이 같은 어울림 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같이'는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자부심이 될 것이다.

Korea created by society

Korean people who have habituated to community living for a long time like being together. When someone visits a house, the house owner never turn away the quest at the door. The quest reject eating

a meal adamantly in the house as the house owner asked him/ her for doing it. The house owner keeps doing saying that he/she just add a spoon to the table. Finally, the quest participates in it. The frequency has recently been reduced, but The characteristics that Korean people like experiencing and sharing their overall lives including meals, studying, and hobbies with others has still been left. Society created by this characteristics of Korea can be interpreted as a culture. Society which means that two more than things harmonize with each other has shown in every place of the communities. As for the past, people have overcome hardships against their sufferings through society in the situations that many world powers threatened the nation. And the spirit that people do to face and overcome several economic crises which happened in recent times shone all the more brightly. All kinds of campaigns to live together were conducted and people shared their pains and treated their wounds together. So they could turn the corner again and Korea has now been developed like this.

Various beautiful faces including magnanimity, cooperation, consideration, and sharing created by society made Korean people overcome several national crises and astonished the world by creating surprising cultural events that many people are together to become one under the name of Korea like the 2002 World Cup. In addition, society is beyond people, things, and fields. As various cultures and value are flowed into Korea due to globalization, the media and artistic content that embraces the whole by adding Koreans' aesthetics of society to it with an absolute proposition of unique Korea which combines various elements with together are influencing the whole world.

Now, Korea faces a new task in the age of revolution. While the boundaries between countries are crumbing down and various people and culture coexist, Korea tries not to lose its balance in the situation that everybody maintain their opinions. Korea is making its effort to be together under the name of Korea rather than being self-righteous. The power of society created by the community is the number one which solidified Korea. And another 'together' created by society like this will be another self-esteem of Korea in front of a huge wave of globalization.

한국 최초 결핵요양원 설립자 셔우드 홐 (Sherwood Hall)

하국이여

"나의 사랑

글 김초록 일러스트 김수민

XMAS AND NEW YEAR GREETINGS 1932-1933 Contractor of OOD HEALTH 用和可以是是 〈한국 최초의 씰〉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 1932년 12월 3일 한국에서 '크리스마스 씰'이 최초로 발행된다. 조선의 상징이며 결핵을 방어하는 성루의 의 미로 남대문이 그려진 이 씰을 발행한 이는 '셔우드 홀(Sherwood Hall)', 1893년 서울에서 출생한 그는 평양외국인학교 첫 입학생으로 수학했으며 이후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1926년에 다시 황해도에 상륙했다. 평안도 사투리를 완전하게 구사할 만큼 조선 사람들과 허물없이 지낸 셔우드 혹은 당시 조선사람 5명 중 1명꼴로 앓고 있는 결핵 휘자를 치료하는 데 전념한다. 많은 이들의 방관 속에 서 망국병이라 여겨질 만큼 결핵이 나라 전체를 뒤덮는 상황을 목격한 그는 조선땅에서 결핵을 퇴치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요양소를 건립 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1928년 황해도 해주시 황해 바다가 보이는 곳, 한국 최초의 결핵 요양소 '해주구세요양원'이 설립된다. 이 후 셔우드 홈은 결핵 치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선에서 크리스마스 씰 운동을 펼치기로 한다. 씰의 첫 도안은 거북선에 대포를 배치하 고 결핵을 향해 발포하는 그림으로 제작되었는데 이는 씰의 도안이 조선의 민중들에게 열성과 가능성을 부채질할 수 있는 그림이어야 한다는 그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에 패한 전<mark>적이 있는</mark> 일제의 반발로 씰의 그림은 한양도성의 남쪽에 있는 문인 승례문으로 대체되었다. 크리스마스 씰 운동 은 성공을 거듭했으며 이후 악귀가 데려가는 것이라 여겨지던 병인 결핵은 조선에서 서서히 물러갔다. 그리고 1941년, 셔우드 홈을 탐탁지 않게 생각한 일제의 공 작으로 그는 영국 스파이라는 오명을 안고 한국 땅을 떠난다.

'고요한 아침의 땅'에 내 인생을 수놓은 지 22년, 그동안은 문자 그대로 사건과 흥분의 연속이었다. 그렇다. 조선을 떠나기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우리 인생과 깊은 인 연을 맺었던 모든 것들을 저버리고 떠나기란 참으로 힘든 일이다.… 출발 시간이 가까워졌다. 나는 상념에서 깨어나 아이들을 불렀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아름답게 수놓 은 조선 국기를 꺼냈다. 나는 태극기를 펼친 다음 나뭇가지에 걸었다. 우리 가족은 태극기 주위에 모여 섰다. 조선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축복을 기원할 때 "만세!"를 부른다. 이 말은 "1만 년을 자십시오!"라는 뜻이다. 우리 가족 다섯 중 네 명은 모두 조선에서 태어났다. 나의 아내 메리안도 생애의 전성가를 조선에 바쳤다. 나는 가족에게 조선의 국기인 태극기를 향해 마지막 인시를 하자고 했다. 우리 가족은 소리를 높여 "만세!"를 외쳤다. [다티 홀의 조선 회상/셔우드 홀, 본문 발췌]



셈법과 관련된 단어의 다양한 의미와 쓰임새

삶은 계산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계산을 하였는데요. 아침에 출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교통비를 지불하 고, 허기를 달래기 위해 편의점에서 과자를 구입하면서 과자값을 지불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내가 얼마큼을 아끼면 미래에 얼마큼을 얻을 수 있을지 계산기를 두드려보고요.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줄 때 나중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곤 합니다. 이렇듯 수많 은 셈법을 하고 살아서일까요. 유난히도 셈법과 관련된 단어인 '빼다'와 '더하다'는 생활 곳곳에서 다양한 표현들로 사용되는데요. 이번 시 간에는 '빼다'와 '더하다'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와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클리츠록 MUKBS

세상에 다시없는 앙숙 모녀를 통해 징글징글하면서도 짠한 모녀간 애증의 이야기를 그린 KBS 주말드라마 〈부탁해요, 엄마〉, 극 중 딸 진애(유진 역)는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엄마 산옥(고두심 역)의 반찬 가게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반찬가게 건물주 김사장(김준현 역)의 횡포에 담판을 짓기 위해 김사장을 찾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건넨다. "저희 의 표현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을 목 가게 빼라고 하셨다면서요?"

다. 덧셈은 어떤 수에서 다른 수의 만큼을 더한 것 을 말하고 뺄셈은 어떤 수에서 다른 수의 만큼을 빼 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의미로 사용하 는 '빼다'는 바로 이 같은 뺄셈에 관한 것으로 수 개 념에서 일정량을 감하는 경우에 사용되는데요. "5

에서 3을 빼다"와 같은 문장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 이죠. 그런데 화난 그녀가 당신이 내 가게를 빼라 고 했냐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건넵니다. 여기서 잠깐, 가게를 빼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 때의 '빼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셋방 따위를 비우 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을 빼다" 등 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 쓰이는 의미로는 '속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산수는 덧셈과 뺄셈입니 에 들어 있거나 끼어 있거나. 박혀 있는 것을 밖으 로 나오게 하다'의 '빼다'입니다. 예를 들어. "주머 니에서 손을 빼다". "책꽂이에서 책을 빼다"로 표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를 감할 때의 의미와 비슷한 의미의 '빼다'가 있습니다. '전체에서 일부를 제외하거나 덜어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구입 목록에 세제가 빠져있네". "명부에 그의 이름 이 빠졌어" 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 서 말했듯이 덧셈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더하다'라 는 단어 또한 여러 가지 의미와 쓰임새를 가지고 있 습니다. 먼저 '더하다'는 '빼다'와는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빼다'가 일정량을 감하는 경우에 사용된다면 '더하다'는 일정량을 가하는 경우에 사 용이 되지요. 이처럼 '더 보태어 늘리거나 많게 하 다'의 의미를 가진 '더하다'는 "둘에 셋을 더하다". "이 음료는 주스에 사이다를 더해 만들었다"와 같은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주 사용되는 의미로는 '어떤 요소가 더 있게 하다' 인데요. 이를 이용한 표현으로는 "공부에 노력을 더하다". "인사 에 자신감을 더하다" 등이 있습니다.



The first things that we learn in math class commonly witness the word being used and expressions. The word 'to add' has are addition and subtraction. The addition means adding a certain number to another number, and subtraction means subtracting a certain number from another number. The most commonly used meaning of a hand from the pocket' and 'to subtract a 'to increase something by adding' is used subtracting is to reduce a certain amount like the math of subtraction. The example similar meaning as subtracting numbers is drink was made from juice added to cider. is "3 subtracted from 5". One day, an angry woman tells me with enraged voice that her landlord asked her to subtract her store. What do you think 'to subtract the 'His name is subtracted from the name greeting.' store' means in this sentence? It means list.' As mentioned above, the concept of 'to empty a rented room or store'. We addition can be used as various meanings







저희 가게 빼라고 하셨다면서요? Did you say we should subtract our store?

as the expression of 'to subtract a room'. the opposite meaning from 'to subtract'. Another commonly used meaning is 'to While 'to subtract' is used to express the get something stuck or trapped out'. For meaning of 'to reduce', 'to add' is used as example, it can be expressed as 'to subtract 'to increase'. The word 'to add' which means book from the bookshelf'. In addition, the ____as the expression of 'to add 3 to 2' and 'This 'to exclude or reduce something from the Another commonly used meaning is 'to add whole'. The examples are 'The detergent is a certain element'. The example is 'to add subtracted from the purchasing list.' and efforts to studying' and 'to add confidence to



한국의 주거 제도에 관하여

Regarding Korea's residence system

사람이 온전하게 생활을 영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꼽으라면 자연스레 의식주를 생각할 것입니다. 이 중에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자신을 자유롭게 놓일 수 있는 안락한 보금자리인 집은 사람에게 공간 그 이상의 의미임은 틀림없습니다. 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해외에서 장기 체류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 또한 주거문제. 그러나 나라마다 주거 관련법이 상이하고 적지 않은 돈이 투여되는 만큼 신중을 거듭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한국 정착을 꿈꾸며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주거 관련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리 **편집실**



도시에 몰리기 시작했고 반면 이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주택이 한없이 모자라 주택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가격 때문에 집을 구입할 수 없는 사람들과 당시의 높은 은행저축이자라는 상황이 맞물려 집 주인들은 주택가격의 일부분을 전세금으로 받고 일정 기간 사람들에게 집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얻게 된 전세금을 은행에 저축해 높은 이자로 수익을 얻는 것이지요.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연이어 자신의 집을 전세로 내놓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전세는 지금까지 한국의 주요 주택임대차 형태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월세'는 조금은 친숙한 개념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외국의 'rental' 개념과 거의 동일하며 월세를 번역하면 'monthly rent'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월세는 계약 기간 동안 달마다 일정 금액을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방법으로 집을 임차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의 월세와 조금 다른 점이라 하면 한국은 월세를 계약할 때도 대부분이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집주인에게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높은 금액이라는 점이 외국의 월세와는 다른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제도 '전세'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다른 사람의 집을 빌려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일명 '주택임대차' 유형에는 '전세'와 '월세'가 있습니다. 이 중 많은 외국인들이 낯설어하는 전세는 세계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제도입니다. 전세란 주택가격 일부를 보증금 형식으로 집 주인에게 맡기고 일정 기간 임차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집이 계약 기간 1년에 전셋값이 2,000만 원이라고 부동산이 제시한다면 계약 당시에 2,000만 원을 집주인에게 준 뒤 계약 기간인 1년 동안 임차한 집에서 거주하고 계약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처음 집 주인에게 준 2,000만 원을 되돌려 받으면서 해당 집에서 퇴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만 유일하게 전세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전세가 처음 등장한 것은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로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조선 말기 전셋값은 평균적으로 집값의 반 정도였다고 합니다. 전세제도는 이때부터 그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한국의 산업화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화의 팽창으로 많은 사람들이

'Jeonse', the only system in the world

There are two types of house lend-lease, which refers to the right to live in another person's property for a certain amount of time by paying a certain amount of money. They are 'Jeonse' and 'wolse'. The system 'Jeonse', which most foreigners are unfamilar with, is the system that exists only in Korea. 'Jeonse' is the system that people deposit part of the house price to the owner of the house, live in the house for a certain amount of time, and then get the deposit money back when they move out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lease contract. For example, if a landlord suggests 20 million won as the jeonse deposit, you give 20 million won to the landlord at lease contract. You live in the house for 1 year of the contract period, and then you move out by receiving the 20 million won. Then, why does only Korea have the 'jeonse' system? According to the established theory, Jeonse appeared after Japan-Korea Treaty of 1876. The average jeonse price of the late Joseon

가치에 대해 지불하라고요? '권리금'에 대하여

요즘 많은 이들이 창업을 꿈꾸며 한국행을 택합니다. 다양한 사업 분야에 도전하기 위해 한국에 도착한 이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 또한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한 사업장을 구하는 것인데요. 이때 마주하게 되는 개념이 바로 '권리금'입니다. 이 또한 외국에서는 흔히 접할 수 없는 개념으로 전세 또는 월세라는 기본 개념에 더해지는 옵션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권리금의 사전적 정의를 알아보면 '어떤 권리나 이익을 넘겨주는 대가로 주고받는 돈'입니다 이는 빈 공간이 아닌 이전에 영업하던 곳을 빌리고자 할 때 영업시설과 비품 등 유형물이나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단골고객,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따른 이용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빌리려고 하는 점포의 주인이 그동안 들였던 수고와 그에 따른 결과물을 인정하고 이를 얼마만큼의 돈으로 환산해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지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ynasty was said to be half of the house price. The jeonse system remained in existence, and it became prevalent from 1970s, when industrialization was accelerated. Many people started to rush to cities due to expansion of industrialization, but there were not enough houses to accommodate the people. Accordingly, the house price skyrocketed. Due to both lack of houses and high interest rate, landlords received part of house price as jeonse money and rented their houses out. They earned high interest by depositing the jeonse money in the bank. As more and more people who owned houses started to rent out, the system has became the major house lend-lease in Korea.

On the other hand, 'Wolse' might be more familiar. This system, which can be translated into 'monthly rent' is the same as the concept of 'rental' in other countries. It is the system that people pay rent monthly to their landlords during the contracted period. What is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is that people deposit a certain amount of money to the landlords, and the amount is pretty big.

Do you ask me to pay for the value? Regarding 'Gwoligeum(premium)'

These days, many people chose to Korea to start a business. The first task that they have to figure out in Korea is to find a business spot. At this time, people encounter the concept 'gwoligeum(premium)', which is not common in other countries. This can be considered as option concept added to the basic concepts of jeonse and wolse.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gwoligeum is 'the money for transferring a right or advantage'. This is the money paid for the cost of tangible objects such as facility and equipments, and intangible values of property such as locational interests, regular customers and business know-how, when a person intends to rent a business place that was occupied by another business, not an empty place. In other words, a person who intends to rent a store acknowledges the efforts that the former owner made and the outcome of the efforts, and then pays a certain amount of money in the name of 'gwoligeum'.

국내 체류 외국인, 마을변호사에게 무료 법률상담 받으세요!

Foreign residents can access quality legal counseling in rural areas free of charge

각종 출입국심사 서비스와 외국인정책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共ZONE〉편집실(zee@theseven.co.kr)로 질문을 보내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 한국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생활의 많은 것이 낯선 상태입니다. 특히나 한국 법을 잘 몰라 임대차계약과 같은 법률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걱정만 앞 서게 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제가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A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임대차계약 · 이혼 · 범죄피해 · 임금체불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겪고 있으나, 언어장벽과 정보부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 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파악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법률적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10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는 대다수 외국인이 거주하는 수도권 지역 중 외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된 지역(10곳)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 영되며 법무부 · 행정자치부 ·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위촉한 57명의 마을변호사는 지역당 5~7명씩 배정되어 활동합니다. 해당 제도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의 통역을 지원받아 운영됩니다. 1345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법률상담 예약을 요청하면 1345콜센터는 지역별 담당 미을변호사와 상담일정을 조정하 고, 정해진 상담 일자에 3자 통화 시스템을 통해 통역을 지원합니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웠던 외국인들에게 따뜻한 법의 손길을 전하는 맞춤형 법률복지로서 이를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여 '믿음의 법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ince I just came to Korea, many things in Korea are new to me. Especially, I don't know Korean law well. So I worry that I might suffer damage when I deal with legal matters such as lease contracts. Is there any agency or organization which can assist me in such situation?

Considering that foreigners living in Korea suffer from a variety of legal issues including lease agreements, divorces, damages from crimes, and unpaid wages and have difficulty addressing them due to lack of information and language barrier, the Ministry of Justice has been operating 'Community lawyer for Foreigners' in order to recover their legal rights since October 5, 2015.

'Community Lawyer for Foreigners' is being test-operated in 10 districts with established communities for foreigners selected from metropolitan areas where the vast majority of foreigners reside. In each district, five to seven out of a total 57 community lawyers for foreigners appoin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the Korea Bar Association will be assigned. The 1345 Immigration Contact Center, an affiliated body of the Ministry of Justice, supports the operation of 'Community Lawyer for Foreigners' by providing interpretation services.

When a foreigner residing in Korea calls 1345 (directly without area code) and makes a request for a legal consultation, the Center will schedule a counseling service with a community lawyer assigned to the relevant area. Then, interpretation service will be provided on the prescheduled date and time using the three-way call service. 'Community Lawyer for Foreigners' will offer a customized legal aid extending a helping hand of justice to foreigners with limited access to legal service. This program is expected to support their successful adjustment to Korean society and promote respect for law and order, getting one step closer to establishing rule of law based on trust on trust of our nation.



제5회 핸음건기축제 다양한 발걸음이 함계 걸었던 기분 좋은 날

알록달록한 단풍이 저마다의 색깔을 자랑하는 듯했던 가을의 끝자락, 다양한 색채의 가을 풍 경아 한층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리에 모인 다양한 사람들 때문이었다. 개 성이 돋보이는 발걸음, 저마다의 보폭, 각자의 외형과 그들이 표현하는 모든 것은 달랐지만 유난히 가을 내음이 짙었던 그 날의 그 시간, 앞에 놓여진 하나의 길을 함께 걸으며 그들이 가진 마음은 온전히 하나였다. 글 감초록 서된 이용권





249



계속되는 행진, 더 커지는 마음

한마음걷기축제는 '세계인이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라는 목표를 위해 건강한 시민사회의 근 간을 마련하고자 개최되는 행사이다. 이는 2008년 보건의료단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무부 산하 사단법인 비영리단체로 다문화가정 및 이주근로자, 새터민의 사회통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 하는 건강사회운동본부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공동 주최하고 있다. 한마음걷기축제는 많은 이 들의 참여와 관련 기관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2011년을 시작으로 매년 성공리에 진행되었으며 뜻깊 은 행사로 공중에 회자되고 있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한 축제는 '걷고, 화합하고, 배려하고, 나누고'라는 슬로건으로 10월 25일 상암 동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진행되었다. 내 · 외국인을 막론한 참가자들은 행사 시각에 맞춰 평 화의 광장 곳곳에 도착했고 미처 사전 접수를 하지 못한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참가접수를 위한 절차 를 밟았다. 행사본부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부스에서는 행사를 위해서 마련한 도시락과 각종 물 품을 나누어 주었다. 참가자들은 광장에 설치된 건강캠프, 나라별 문화체험 부스 등에 관심을 기울 이며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축제 열기가 가득 느껴지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위로와 공감이 같이 했던 자리

특히나 많은 이들이 관심을 내비친 곳은 정부합동고충상담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된 부스였다. 정부 합동고충상담은 재한외국인의 실질적인 권익증진을 위해 2007년부터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 부, 여성가족부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협력하여 출입국, 체류, 국적, 건강·의료, 법률, 취 업, 가정폭력피해구제 등 재한외국인의 성공적인 국내 생활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서 합동상담을 실시하는 서비스이다.

참가자들은 다른 곳보다 먼저 이곳에 들러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고민과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문제를 전문가에게 털어놓고 해결책을 강구하며 사뭇 진지한 시간을 가졌다. 조금 무거운 주제로 상담을 나누는 참가자들이 있는가 하면 한국생활을 하면서 생긴 사소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참가자들도 보 였다. 상담을 실시하는 전문가들은 이렇듯 국내 생활상에 대해 호기심을 내비치는 이들에게는 한국 생활을 배울 수 있고 한국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 램을 소개하며 많은 참가자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에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뜨거운 울림과 설렘이 가득했던 출발

진행자의 인사말과 함께 개회식은 시작되었고 첫 번째 순서로 세계 국기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참가자들이 자국의 국기를 손에 들고 자부심 가득 담긴 표정과 함께 다부진 모습으 로 중앙 광장을 가로질러 무대로 진출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자국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동향의 사람들은 환호성을 내질렀으며 모든 국기가 무대 위에 함께 자리했을 때, 사람들의 박수 소 리는 쉬이 끊기지 않았다. 국기 퍼레이드가 끝나고 이수구 건강사회운동본부 이사장의 개회사가 이 어졌다. 단장에 올라선 이 이사장은 다양한 국가의 언어로 인사말을 전하여 다시 한 번 이번 행사가 세계인이 함께하는 행사임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본격적인 걷기축제를 앞두고 참가자들에게 전해진 이 이사장의 개회사는 마치 고향에 있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을 연신 걱정하는 듯한 따뜻한 마음 이 물씬 느껴지는 말의 향연이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 하려면 절대로 옆에 있 는 사람하고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그저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제 했던 것보다 오늘 더 잘하려는 마음가짐. 오 늘 했던 것보다 내일 더 잘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 진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사회는 건강해질 것입니다."

또한 그는 무대에 있는 다양한 국기를 가리키며 '다양한 색깔이 한자리에 모이니 이렇듯 아름답다' 고 찬사를 보냈고 '대한민국 내 문화적 다양성이 한국을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라는 말로 개회사를 끝맺으며 다시 한 번 참가자들에게 반가움의 인사 와 감사의 표시를 전했다.

이어 오늘 행사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 은 내빈들이 소개되었는데 김영준 前출입국 · 외 국인정책본부장을 비롯해 송민순 前외교통상부 장관, 이지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등 다양한 인사들이 축제에 참여하여 자리에 빛을 더했다. 본격적인 걷기 행사에 앞서 마련된 축제 열기를 띄우는 다양한 이벤트가 끝이 나고 안전한 걷기를 위해 전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몸풀기 체조 시간을 가졌다. 신나는 노래와 능숙한 치어리더의 모범에 따라 삼천여 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한자리 에서 체조를 하는 초등학교에서나 볼 법한 진풍경 이 평화의 광장에서 펼쳐졌다. 오늘 처음 본 사이 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손을 마주 잡고 스스럼없이 어깨를 부딪치며 체조를 하는 참가자들의 얼굴은 티 없이 맑은 웃음으로 확했다.

6.5km가 의미하는 바

많은 참가자들이 드디어 출발 선상에 집결했다. 출발 신호를 기다리며 사뭇 긴장된 모습의 참가자 들이 눈에 띄었고 반면에 그것과는 아무 상관 없 이 그저 신나는 아이들의 장난 또한 곳곳에서 발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새들의 놀란 날갯짓이 곁 들여진 힘찬 출발 소리에 삼천여 명의 발걸음이 6.5km를 한 걸음씩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걷기 대회'가 아닌 '걷기축제'라는 행사 타이틀이 무색 하지 않게 참가자들은 누구를 앞서거나 하려 하지 않아 많은 이들이 마치 사전에 약속한 것처럼 나 란히 행진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의 모양새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만큼 수많은 이야기가 맴돌았고 이는 공원을 가득 채 웠다. 주위의 풍광을 둘러보며 가을의 온도에 대 해 얘기를 나누고 사회 속에서 제 역할을 해내며 바쁘게 지낸 탓에 나누지 못했던 사소한 이야기를 옆에 있는 이와 주고받았다. 그리고 대부분 자신 들이 지금 이 시각, 여기서 걷고 있는 이유와 같은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견되었다.

젊은 여성 두 명이 도란 하게 말을 주고받으며 여 유롭게 반환점을 돌아 나오고 있었다.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시행 중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 여하고 있는 프랑스에서 온 알렉산드라와 줄리. 평소에도 날씨 좋은 날, 달리기를 취미로 하는 그 녀들은 오늘 행사에 대한 만족감을 여실히 드러냈 다. 그리고 해맑게 말했다.

"축제는 언제나 즐거워요. 사실 오늘 행사의 거창한 취지 같은 건 理正, 主日前 잘은 모르지만 어찌 되었 든 축제는 신나는 일인 거죠. 서로 알지도 못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함께 어울 리며 재미있는 무언가를 한다는 건 그 자체로 의미 있 는 일이에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성

공한 하루가 아닐까요. 오늘의 경험이 제 한국생 활에 활기를 더할 거라 믿어요. 또한 오래도록 기 억에 남는 특별한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약 두 시간 정도가 지나니 완주증을 손에 든 사람 들이 하나둘씩 다시 평화의 광장으로 속속 도착했

4月空の日本に 第二

엄마 그리고 유쾌해 보이는 삼부자까지, 참가자들 은 조금은 지친듯한 기색이 여렸지만 그래도 광장 에 설치된 나라별 문화체험 부스에 들러 부가적인 즐거움까지 누리는 것을 빼먹지 않았다. 유난히 짙은 가을내음이 코에 내려앉고 색을 칠해 놓은 듯 알록달록한 풍경이 눈에 드리운 날, 한 발 짝 물러서면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광장 전경 덕에. 이곳에 오늘의 가을 풍경에 뒤지지 않을 만큼 저 마다의 빛을 발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음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많은 말들과 고저를 넘나드는 웃음소리. 저마다의 발걸음이 만들어 내 는 서로 다른 마찰음을 들었다. 너무나도 다양하 고 큰 이야기이기에 어쩌면 손쉽게 하나의 문장으 로 모든 것을 함축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 날 의 그 시간은 마치 한마음걷기축제의 슬로건과도

다. 나이 지긋한 노부부부터 어린아이를 품에 든

같았다. 많은 사람들은 한 길을 걷고, 함께 화 합했으며, 서로를 생각하기에 배려하고, 즐 거움과 축제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서로의 가슴 속에 나누었 다. 그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 으며 저마다의 모양은 다르지 만,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음은 결코 다르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던 아주 기분 좋은 특별한 가을날이었다.



1345에서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를 만나보세요!

이용방법	☎1345에 전화를 걸고 ▶ 상담언어를 선
상담범위	임금체불, 산업재해, 이혼, 양육, 범죄피
이용대상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외국인(합법체류여북







!택하고(해당 다이얼) ▶ 법률상담 예약을 요청하면 끝! 해. 임대차계약 등 생활법률 전 범위 가능 부 불문),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귀화자

올한해 당신이경험한 가장 아름다운 공존은?

최운도 계장

승객이 제시한 여권을 받는 도중 여권 커버에 손을 베인 적이 있습니다. 승객분이 놀라 허겁지겁 자신의 가방에서 밴드를 찾아 주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다른 승객분들 또한 저에게 괜찮냐고 계속 물어보는 등 상처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비록 작은 상처. 밴드 하나이지만 제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에 저 또한 더욱 친절하게 승객들을 응대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시금 잡게 되었습니다. I got a paper cut on my hand from a passport presented by a passenger. The passenger was surprised and gave me a plaster taking it out of her bag hurriedly. Other passengers who were waiting cared about me so that they continued to ask me if I was okay. Even though it was just a tiny cut and a plaster. I could feel their warm hearts which made me smile on my lips. Again, I decide to treat passengers more kindly.

권영국 반장

한국에 시집왔지만 학대로 도망쳐 불법체류한지 십 년 만에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범처리과정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했고 저 또한 같은 사람으로서 공감하며 업무처리를 하였습니다. 20여 분이 지났을까요, 그분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저에게 주며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남기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분명 국내 법질서를

위반한 점은 잘못되었지만 한 명의 사람으로서 나름의 사정이 있다는 점에 조금만 귀를 기울여 주면 그들이 가진 한국에 대한 부정적

There was a person who had gotten married in Korea but

tried to go back to her country 10 years after being an illegal alien running away from her husband's home due to abuse. I concentrated on her story and humanly sympathized with her in the justice process. Around 20 minutes later, she gave a cup of hot coffee, said 'Thank you' to me and left Korea. Obviously, she was wrong because she violated the Korean law and order. However, I think that the negative image of Korea will disappear little by little. try to understand their

이미지가 조금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circumstances as human beings.

허욱 계장

올여름 부산에 거주하는 세계인들과 함께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공존의 기회를 손수 마련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 건설에 학생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재능을 기부한 한국인과 세계인 자원봉사자 분들과 학생들이 함께 어울렸던 그 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I remember that I directly prepare an opportunity of the coexistence that the cosmopolitans living in Busan understood and experienced cultures of various countries together last summer. I will never forget the moments I spent with the Koreans, volunteer cosmopolitans, and students who were willing to donate their talent to raise students' interests in building 'Vibrant Korea growing with immigrants'.

황유선 반장

제가 올 한 해 경험한 가장 아름다운 공존은 이곳 김해사무소 직원들로 인한 것입니다.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바쁘고 힘들 텐데 휴식 시간에도 쉬지 않고 서로 지원해주며 서로를 배려하는 직원들 덕분에 힘들지만 웃을 수 있었던 일 년이었습니다. 많은 직원분들의 노력과 배려로 우리 사무소가 아름다움이 가득한 공존 그 자체였습니다.

The most beautiful coexistence I experienced this year was the time I spent with my coworkers in Gimhae immigration office here. They supported and were considerate to each other without taking any rest even during the break time even though they were busy doing their jobs and had difficulties in them. Thanks to my coworkers, I could weathering through all the difficulties this year. Our office was the coexistence itself which was

조용운 계장

적은 출입국 인력에 승객들이 몰리는 시간이면 소속부서와는 상관없이 심사업무 지원에 매진하게 됩니다.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정신없는 날을 매일 같이 보내지만 현장은 문제없이 돌아갑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filled with the beauty because of many officers' efforts and consideration.

김해사무소, 항상 서로를 이해하며 배려하고 힘든 일이라면 조금씩 나눠 가지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김해사무소 직원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더욱 활기차게 함께 했으면 합니다. 파이팅!

Because of the shortage of manpower, all immigration officers of every division strive to support examination work when the flow of passengers pours through the terminal.

We spend our days busy as a hen with one chicken as we do not know how a day passes, but things go on smoothly without any problem. I really think that Gimhae Immigration Office is great. I always thank my coworkers in Gimhae Office being considerate of each other and trying to share other coworkers' burdens. I hope we will work together more vigorously next year. Go for it!

Please rotation! 다음 페이지부터 〈共ZONE〉의 또다른 섹션 INSIDE KIS가 펼쳐집니다. 책의 방향을 돌려서,

출입국의 새 소식을 만나보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출입국 25시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 통계로 보는 출입국 대한민국으로 교집합하는 다양한 사람들 출입국 스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감식과 김주현 계장



K.I.S. CALENDAR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화제의 NEWS

제7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 취임



12월 24일 진경준 춬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제 7 대 본부장으로 취임했다. 진경준 본부장은 사법연수원 21기로 서울지검, 대전지검, 부산지검, 법무부 검찰 국, 인천지검,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 청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진경준 본부 장은 인사말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다가오 는 2016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다시 보고 싶 은 한국, 다시 만나고 싶은 한국인, 다시 즐기고 싶은 한국 문화가 되고 '세계인이 다시 찾고 싶은 1등 국가' 가 되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욱 친절하고 성숙한 출입국외국인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 혔다.

자동출입국심사(SES) 이용 대상 외국인 확대



법무부는 2015년 11월 1일부터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와 거주(F-2) 자격 소 지자의 동반가족도 자동출입국심사(Smart Entry Service : SES)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자를 확대 시행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 및 거주 자 격자의 동반가족이 심사관에 의한 대면 출입국심사를 받지 않아도 됨으로써 출입국 편의를 증진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조치로 그 동안 기업투자(D-8)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거주(F-2) 자격으로 변경하면 본인의 다른 모든 체류의 편의가 높 아짐에 반하여 그 가족은 오히려 자동출입국심사를 이 용하지 못하게 되는 불편함도 함께 해소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제주 국제여객터미널 방문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월 21일 크루즈 선박이 접안하는 '제주 국제여객터미널' 현장을 방문하여 크루 즈 승객에 대한 출입국 심사 상황을 점검했다. 제주를 통해 입항하는 크루즈 선박은 최근 5년간 두 배 이상 증 가하였으나, 크루즈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터미널이 없 어 출입국 심사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주항에 41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제주 국 제여객터미널은 지난 7월 완공되었으며, 법무부는 터 미널 개장 시점부터 바로 크루즈 승객에 대한 대면심사 를 실시하고 있다. 김현웅 장관은 이날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출입국심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 이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크루즈 승객의 관 광일정과 선박 운영상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모든 노력 을 다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하였다

광복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비정상의 정상화는

과거로부터 지속되어온 국가·사회 전반의 비정상을 혁신하여,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어젠다입니다. 우리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부정부패,부조리,불법,편법 등의 "비정상"을 바로잡아 법과 원칙이 바로서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가와 사회를 만들어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정상"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선배 이민자가 강사로 나서 후배 이민자 적응 돕는다

법무부는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숙명여대 등 7개 대학에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하 였다. 이번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재외동포·외국인유학생·전문인력 등 한 국어와 외국어에 능통하면서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 착한 선배 이민자를 전문강사로 양성하여 외국인의 한 국사회 조기적응을 지원하는 방안의 일환이다. 이를 통 해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민자에게 사회통합정책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민자 조기적응프로 그램의 정책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비슷한 상황에 놓인 선배 이민자들의 정착 사례를 본보기로 후배 이민자들 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귀화허가 신청시 생계유지능력 요건 강화

우리나라와 혈연 · 지연 관계가 없는 순수 외국인이 대한 민국 국민으로 귀화하기 위한 생계유지능력 요건이 강화 된다.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적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개정안에서는 생계유지능력의 기준을 종전의 자산 3천만 원에서, 두 배인 6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였고 자산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국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평균 근로소득에 준하는 일인 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생계유지능 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신규로 도입하였 다. 다만, 혈연적 · 지연적 유대관계 및 가족공동체의 결 합 등으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결혼이민자 등의 간이 귀화허가 신청자나. 외국국적동포로 정책적 고려가 필요 한 재외동포자격(F-4) 소지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한류 확산과 봉사 활동에 헌신한 외국인 2명에게 국적증서 수여



르도 빈첸조 신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 무료 급식소인 '안나의 집'을 세우는 등 소외된 이웃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고, 위기 청소년을 위한 단기시설, 쉼터, 자립 관 등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탈선 예방에 크게 기여하여 '15년에 '올해의 이민자 상(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다. 보르도 빈첸조 신부는 특별공로자로 귀화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한국인으로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봉사하며 살아가겠다"고 하였다.



법무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를 2015년 12월까지 다시 연장하여 시행 하였다. 이 같은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한국 방문에 대 한 불안감을 덜기 위하여 지난 7월 6일부터 시행되었 고 10월말까지로 1차 연장된 바 있다. 지난 12월 당 시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입국이 많이 회복되는 추세에 있었으나 좀 더 지원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감안 하여 2015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여 시행토록

한국어능력시험 등급,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과정 이수로 인정



법무부는 2015년 9월 7일부터 외국인이 한국어능력 시험(TOPIK) 등급을 받으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 부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 라 한국어능력시험 1~4급을 취득한 외국인은 각각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1~4단계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아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외국인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어능력시험 등급으로 별도의 평가 없이 수월하게 한국어능력을 입증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는 이번 연계를 사회통합프로 그램 참여방법을 수요자인 외국인의 입장에서 다양화 하여 이민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통합프로 그램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를 높여 믿음의 법치를 실 현하는데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봉사활동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들의 공로를 인정하여 지난 11월 19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프랑스 국적자 포로 스트 마르띤 박사와 이탈리아 국적의 보르도 빈첸조 신부(한국명: 김하종) 등 특별공로자 2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하였다. 포로스트 마르띤 박사(언어학 박사, 작가)는 한국인과 결혼하고 프랑스 7대학 동양학부 한국학과장을 역임한 지한파로서, 프랑스 지식인들을 규합하여 외규장각 도서 반환이 이루어지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한국어와 한국 문 화를 프랑스 등 유럽에 알리는 데 기여한 공로로 2009년 정부로부터 '문화포장'을 수상한 전적이 있다. 포로스트 박사는 한국 국적취득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한 ·불 우호 협력 관계를 이어주는 민간 외교관으로서 활동하며, 책 집필과 세미나 등을 통해 프 랑스를 비롯한 유럽에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알리는데 여생을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보

대한민국으로 교집합하는 다양한 사람들

출입국 행정을 맡고 있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업무는 숫자로 기록된다. 그렇기에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소식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표이다. 통계를 활용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이슈를 알아보자.

정리 **편집실** 자료 출처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01 대한민국 내 세계화는 지속 성장 중

외국인등록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은 신분과 체류 목적 및 현황에 대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현황에 대한 파악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015년 10월 기준 등록외국인 수는 1,149,48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012년 932,983명, 2013년 985,923명, 2014년 1,091,531명으로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등록외국인 국적별 현황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 순으로 나타나며 총 등록외국인 중 가장 많은 370,520명이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순으로 서울 278,431명, 경남 82,364명으로 분포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2년 이후 매년 28%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던 결혼이민자는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결혼이민 사증발급심사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화조치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더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2년 148,498명으로 집계된 외국에서 온 국민의 배우자는 2013년 150,865명, 2014년 150,994명, 2015년 10월 151,431명의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을 국적 · 지역별로 보면 중국이 38.9% 비율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베트남, 일본, 필리핀 순이며 총 국가 수는 약 200여 개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84.7%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남성이 15.3%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과거에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과 그 직계비속은 일명 외국국적동포로서 재외동포법에 의거하여 국내의 국민과 거의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체류 외국국적동포 수는 2012년 538,277명, 2013년 602,226명, 2014년 704,536명, 2015년 10월 754,47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의 국적별 현황은 중국이 649,26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미국 46,774명, 캐나다 15,298명, 오스트레일리아 4,449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엄정한 국경관리를 선도합니다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

친절과 엄정이라는 단어는 서로 전혀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상반된 느낌을 준다. 하지만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이 단어들이 마치 한 몸에 붙어있는 양팔처럼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수반되었는지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는 직원들의 얼굴만 봐서는 감히 짐작할 수 없다. 업무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야 깨달았다. 업무를 행하는 진정성, 상대방을 대하는 진심, 출 입국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이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를 최고로 만든다는 것을.

글 **김초록** 사진 이영균





친절하고 행복한 우리 사무소

1963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수영출장소 신설을 시작으로 역사에 편입된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김해사무소)는 이후 1976년 김해국제공항으로 이전, 2007년 김해국제공항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 었습니다. 한 해 5백만 이상의 입출국자를 마주하는 김해국제공항, 그리고 공항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김해사무소는 타 출입국사무소와는 조 금 다른 조직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 · 외국인의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입 국과와 또한 내 · 외국인의 출국심사를 담당하는 출국과 그리고 정보관리과로 조직되어있습니다.

가장 먼저 김해사무소가 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제반적인 요소를 관 리하는 사무소의 꽃, 총무팀에 방문하였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공항에 위 치해 있어서 일까요, 총무팀 직원들 또한 분주하게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총무팀 허욱 계장이 자랑하는 '친절하고 행복한 우리 사무소'라는 타이틀을 가진 게시판이 었습니다.

"김해사무소가 행하는 다양한 행사현장을 담은 사진부터 우수심사관과 모범 사회복무요원의 한 컷 그리고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현장과 사 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모습까지, 친절하고 행복한 사무소를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이 여기에 담겨있습니다."

허욱 계장의 말처럼 게시판을 보고 있자니 김해사무소의 일 년이 파노라마처 럼 눈에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타난 다양한 행사 모습과 직원들의 표정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김해사무소가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왔는지 직원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업무에 임하는지를 말이죠. 행복한 직장은 그냥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김해사무소가 있기까지 장영채 소장님을 비롯해 61명의 직원 각자가 모두 온신의 힘을 다하였다고 자 랑스럽게 전할 수 있겠습니다. 친절하고 엄정한 국경관리라는 비전을 달성하 기 위하여 바쁜 와중에 매월 실시하는 공직가치 및 친절교육과 정부 3.0 교육 을 기본으로 친절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매일 아침 팀장이 주 도하는 5분 브리핑제를 실시합니다. 작은 것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말이 생각 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 아침에 행하는 교육은 직원들에게 친절의식을 제고하고 출입국심사 시 중요한 사항 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킵니다. 이 같은 교육은 다양한 교육 효과를 탄생시키는데요. 분기마다 탄생하는 우 수 직원들이 그 실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수심사관부터 우수 복무요원까 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닙니다. 최선으로 일하기에 최고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결코 자만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최우선은 국민안전 확보

최근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 김해사무소 또한 비상체제에 돌입하여 국경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며 보안에 힘쓰고 있었 습니다. 사전승객정보분석시스템과 사전승객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해 탑승 자 명단을 사전확보하여 우범자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출국 부적격자의 출국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데요, 또한 외국어 우수 직원을 심사현장에 배치 하고 교차지원함으로써 합의심사를 강화하였고 이를 통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 가 있는 외국인은 입국을 불허함으로써 국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 니다. 철저한 국경관리를 위한 노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해사무소는 외국 인 허위초청 업체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며 다양하고 치밀해지는 허위 입 국 수법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주기적인 조사와 자료 공유, 합동 단속 등을 통 해 어느 하나 놓치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각종 전염병의 국내 전파 차단을 위해 입국심사를 강화하며 또한 국경점 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사람의 출입뿐만 아니라 전염병 의 출입까지 엄정하게 관리하는 김해사무소, 그리고 이를 이끄는 장영채 소장 님은 공항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근무지로 삼고 있는 만큼 보안을 거듭 강조합 니다.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기 위한 출입문을 지키는 한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안 의식입니다. 출입국 직원은 대한민국을 출입국하는 승객 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불순 목적 외국인의 입국을 봉쇄하여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국경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 기도 자들이 김해공항을 통과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이곳, 김해사무소에 어울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동출입국심사 홍보,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앞장섭니다

이번에는 출입국심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가보았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 는 승객들의 행렬이 가득한 출국장은 혼잡하다는 말로는 다 설명이 되지 않는 데요. 복잡한 와중에도 초연하게 업무를 보는 이들이 있었는데, 바로 심사관 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눈과 손은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바쁘지만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승객들에게 전하는 인사. 잠깐의 여행이든 영원한 이별이든 한국을 떠나가는 이들에게 전하는 따스한 마지막 인사, 바로 심사관들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인사에 승객 또 한 기분 좋은 마음으로 마지막 인사를 남겨두고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잠깐 눈을 돌리니 길게 이어진 심사대기줄 옆으로 승객들이 순식간에 빠져나 가는 게이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승객 스스로 여권을 인식대에 놓아 스크린하 고 다음 순서로 지문인식과 안면인식 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바로 말로만 들 었던 자동출입국심사대인데요, 이는 사전에 여권정보와 바이오정보(지문, 안 면)를 등록한 후 자동출입국심사 게이트에서 이를 활용하여 출입국심사를 진 행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이용하면 약 12초 이내에 심사를 끝낼 수 있습니다. 마침 이날은 김해사무소가 이렇듯 유용한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를 홍보하기 위 해 자체적인 이벤트를 펼치는 중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무소는 자동출입 국심사를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캐릭터를 이용 해 자동출입국심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친근하게 다가가는 출입 국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상정하고는 부산 유일의 창작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반달 스튜디오와 MOU 체결을 통해 애니메이션 졸리폴리 캐릭터를 이용하여 자동출입국심사를 홍보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출입국 직원들은 신나는 이벤트에 설레는 마음을 안고 거리낌 없이 캐릭터 인 형 탈을 입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신속 편리한 자동출입국심사라고 적혀



진 띠를 맨 캐릭터 인형들이 출국장에 등장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 중되었습니다. 자동출입국심사 게이트 앞에 선 인형은 자동출입국심사를 통 하는 승객들에게 다가가 인사하며 즐거움을 선사하였는데요. 대면심사를 앞 두고 긴 줄에 서서 대기하는 이들은 신기함 반 부러움 반을 담은 눈길을 보내 왔습니다. 이에 인형 복장을 한 직원들은 대면심사 승객 대기선에 다가가 이들 에게도 인사를 건네며 기다림에 지친 승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하였습니다. 꼬 마 승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캐릭터 인형에게 먼저 다가가 손 내밀고 또한 많 은 사람들이 인형과 기념사진을 남기려 하며 캐릭터 인형은 등장한 지 얼마 지 나지 않아 출국장의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가만있을 수 없죠. 몰려드 는 사람들에게 직원들이 나눠준 것은 바로 자동출입국심사 리플릿, 그리고 여 기저기 자동출입국심사에 대해 물어오는 승객들 질문에 많은 직원들이 출국장 으로 나와 일일이 설명해주는 광경까지, 오늘 이벤트는 대성공입니다. 승객들 저마다의 손에는 리플릿이 하나씩, 입가에는 즐거운 웃음이 가득한 시간이었 으니 말이죠.

홍보이벤트 효과가 벌써 나타나는 것일까요, 출국장에 위치한 자동출입국심 사등록센터에 등록을 위한 줄이 순식간에 길게 이어졌습니다. 등록을 앞둔 승 객들은 정말 간단한 심사과정에 신기함을 가득 안고서 순서를 기다리고 등록 을 끝낸 승객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유유히 게이트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함을 느끼는 건 다름 아닌 출입국 직원들이었습 니다. 승객들에게는 잠시 잠깐의 즐거운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 늘을 위해 수많은 직원들이 수많은 시간 동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의 시간을 가 졌습니다. 국민들이 출입국 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바라는 그 마 음 하나만을 가지고서 말이죠.





진심이 담긴 언제나 스마일

마지막으로 김해사무소의 핵심조직인 정보관리과에 방문하였습니다. 출입 국 심사 부서와는 다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 있지만 정보관리과는 남부권에 위 치한 법무부 산하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중점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 다. 김해사무소를 비롯해 부산, 울산 등의 사무소 출입국심사시스템을 관리하 며 심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장애가 발생하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심사업무의 중단이 없도록 남부지역 비상출입국심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중에 있는데 요. 또한 서울. 인천공항사무소의 주요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실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함께라서 가슴이 뜁니다 김명욱, 국가근로장학생

학교 홈페이지에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 근로장학생을 모집한다는 공지사항을 보고 항공사 승무원이라는 제 장래희망을 생각할 때 공항 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주저 없이 신청하게 된 게 김해사무소와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실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일하며 저는 남다른 책임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만 명이 넘는 내외국인을 상대하면서 친절하게. 때로는 엄중하게 법을 집행 하는 모습에서 한 사람의 행동이 한국의 이미지를 결정한다는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임감은 제 가슴을 뛰게 하였고, 한국 의 민간외교관인 승무원이란 직업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가슴을 뛰게 한 것처럼,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 모든 구성원의 땀방울은 오늘도 김해국제공항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복제하고 있어 재난 발생 시 자료의 유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친절하고 행복한 김해사무소 직원들의 왼쪽 가슴에는 스마일 배지가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민원인을 미소와 함께 친절한 행동으로 상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민원인이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진심으로 대하자 는 철학이 그곳에 담겨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해사무소 직원들 가슴 옆에 자랑스럽게 달려 있는 스마일 배지가 더욱 빛나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출입국시스템이 세계화되는 그날까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감식과 김주현 계장 글 **김초록** 사진 이대원

단 10분이었다. 김주현 계장과 10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간. 눈 마주치며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가 모든 이들이 인정하는 감식과의 에이스라 불리는 이유 를 알 수 있었다. 전국출입국관리사무소 중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조직. 감식과. 그것도 전국 출입국 관련 감식업무를 총괄 하는 이 자리에 그가 있었다. 대한민국 출입국시스템을 세계에 전파하겠다는 다부진 포부를 품에 안고서 말이다



기본이 최고를 만든다

감식과는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산하 유일한 감식전문부서로서 대한 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출입국자와 관련된 문서와 신분의 진위를 감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중에 위변조 수법과 동향을 분석하는 연구개발 업무 를 맡고 있는 김주현 계장, 매년 겨울에 열리는 감식과의 가장 큰 행사인 관계 기관 감식세미나를 위해 너무나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와 어렵사리 한 자리에 마주 앉았다.

2010년 감식과에 첫발을 디딘 이래 현장문서감식과 위변조교육, 대외협력 등 다는 방증인 셈이니 직원들은 자부심 띤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다. 여러 업무를 담당해 온 그가 제일 처음 감식이라는 업무와 마주한 때는 지금은 그리고 그중 가장 함박웃음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명실상부 에이스라 불리 역사 속으로 사라진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대산출장소 시절이다. 출장소 캐비 는 김주현 계장이 아닐까. 그 비결을 물어봤더니 문서감식팀부터 바이오정보 닛에 놓인 여권감식실무 책자와 위변조감식장비들을 우연히 발견하고 호기심 팀, 감식과 선배들까지 그저 수많은 이들에게 빛나는 공을 돌렸다. 그리고 현 이 동해 혼자서 탐독했던 것이 감식과와 인연의 시작이었다. 이후 인천공항에 장에서 위변조 여권을 적발해내는 동료 심사관들이 없다면 감식과 또한 존재할 전입한 뒤 심사과에서 근무하던 그는. 감식과와 관련된 업무와 행사에 적극적 수 없다며, 묵묵히 고된 출입국심사를 수행하는 심사관들의 노력에 대한 감사 으로 참여하며 인연을 이어가던 중 감식과로 발령받게 되었다. 연구개발팀에 를 아끼지 않았다. 올 한 해 출입국심사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감식교육은 무려 처음 발을 들여놓은 순간, 그의 앞에 놓인 것은 마치 독서실과 같은 감식과만의 246회, 교육 후에는 심사관들이 이를 바탕으로 위조여권을 실제로 적발하는 학구적인 분위기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날로 교묘해지는 위변조 여권을 등 높은 교육 효과를 자랑하며 이 같은 결과는 그의 가장 큰 보람이기도 하다. 김주현 계장은 문서감식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바쁜 시간을 쪼개고 잡아내기 위해 감식과 직원들은 밤낮으로 진본 여권의 보안요소를 분석하고. 직원들에게 전파할 교육 자료를 작성하는데 몰두하고 있었다. "초창기 여권 위변조 수법은 사진교체 방식이었습니다. 인적면에 소지자 사진 학원 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국외 장기훈련을 앞두고 있다. 수많은 노력과 시간 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여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제거한 후 자신의 사진 들, 그는 이 모든 과정이 지나간 후 자신의 어떤 모습을 꿈꾸고 있는 걸까. 을 재부착하는 방식으로 위변조가 이루어졌죠.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 전 세 계적으로 여권 표준화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권도 사진부착방식에서 벗 어나 사진을 인쇄하는 사진전사식 여권이 널리 도입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인적면 자체를 사진과 함께 재인쇄하는 방식으로 위변조가 진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위변조 동향은 많은 나라가 도입하고 있는 전자여권과 관련이 있는데요. 기존의 아날로그적 위변조 방식과 더불어 전자여권의 칩 속에 담긴 위변조방지 PRADO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 전 세계 이민청 직원들이 이를 사용하는 모 장치들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보안요소가 도입되더라도. 여권이라는 실체가 존재하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이 자신의 꿈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그 는 한 기본적인 위변조 감식기법의 중요성은 결코 놓칠 수 없다는 김주현 계장 의 다부진 포부가 머지않아서 실현이 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명 확한 미래를 그리는 확신과 한국 감식기술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외국인의 유일한 신원확인 수단인 여권의 진위확인은 출입국심사의 기본인 만 큼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기본의 중요성을 그는 힘주어 말한다. 가능케 하는 김주현 계장이 있기 때문에.





대의가 꿈이 되는 사람

지난 20년간 감식과에서 축적해온 기본에 충실했던 땀방울들이 지금과 같은 찬란한 빛을 발하게 하는 것 같다는 김주현 계장, 그도 그럴 것이 과거 선진국 에 위변조 감식기술을 배워오던 초창기 모습에서 이제는 감식의 3요소인 인 력, 장비, 기술 중 그 어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자랑스러운 감식과가 되었다. 한국의 감식기술을 전수해달라는 해외 이민청들의 계속되는 요청에 감식과 업 무는 날로 늘어가지만, 이는 곧 한국이 감식분야에 있어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

틈을 내어 전문교육에 임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영국에서 문서감식대

"글쎄요, 문서감식대학원에 도전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문서감식 관련 학위 수료자가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 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공부가 끝난 후에도 저는 여전히 출입국공무원이겠지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감식과 의 감식정보시스템의 해외 수출입니다. 유럽연합(EU)의 문서감식정보시스템

하나를 위한 모두를 위한

INSIDE KIS ▶ 출입국 정책

'사회통합정책'

'Social Integration Policy' for Unity and for All

국내 체류 외국인 수 180만여 명(15년 8월 기준), 대한민국 총인구 대비 3.6%에 해당하는 이들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따라서 세 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을 위해 법무부는 대한민 국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정책의 일환으로 사회통합교육 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통합교육은 외국인이 국내 생활에 적응하 여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내 생활 적응에 필요한 기초정 보 및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의 이해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외국인이 문화 차이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국민과의 갈등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워 국민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리 편집실 자료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는 각종 각색의 이유로 대한민국 사회에 진입한 이들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서 이민자의 국내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경제, 사회, 법률 등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다. 또한 행복한 국제결혼생활을 위해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장기체류 이민자를 대상으로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 금까지 수많은 재한외국인이 개인 상황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이수함으로써 현재 성공적인 국내 생활을 영유하고 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민자의 국내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경제, 사회, 법률 등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서 외국인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이다.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외국인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이 한국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어서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 자가 증가하는 현황을 보이고 있다. 이에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는 전국 308개 운영기관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 학습관과 화상 교육 제 도를 도입하여 보다 많은 외국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자가 우리말과 우리 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함에 따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재한 외국인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으로 표준화하고 이를 이수한 이민자에게는 국적취득 필기시험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는 이민자의 성공적인 국내 생활 정착을 위하여 KIIP를 개발하고 운영기관(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프로그램 신청대상은 모든 이민자 및 국민으로서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프로그램 이수 희망자는 사회통합정보망에 회원가입 후 참여자 체류지 인근 운영기관 중 교육받기를 원하는 법무부 지정 운 영기관에 등록 신청을 하면 되고 이에 따라 배정된 운영기관의 일정에 따라 교육 에 참여하면 된다.

교육과정에 배치되기에 앞서 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한국사회이해 정도 등을 측 정하기 위한 기본소양 사전평가가 실행되며 이에 따라 이수 레벨이 지정되면 개 인에게 최적화된 사회통합 프로그램 단계에 배치되어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KIIP과정은 총 0단계~5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0단계~4단계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수학하고 마지막 단계인 5단계는 한국사회의 이해 과정으로 국내생 활상 전반에 대해 수학하며 단계별로 이수시간은 상이하다. 각 과정이 종료된 후 에는 단계평가를 실시하는데 불합격자는 해당 단계를 재이수해야만 다음 단계로

이동이 가능하다. 한국어 과정이 종료되면 중간평가인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능력시험(KIIP-KLT)을 실시한다. 이에 합격하면 5단계인 한국사회의 이해 과 정에 참여하게 된다. 5단계 수료자를 대상으로는 종합평가인 한국이민귀화적격 시험(KINAT)을 실시하고 이에 합격하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이 발급되며 이수완료 처리가 된다

Korea Immigration Integration Program

The Korea Immigration Integration Program is a standardized curriculum where foreigners can develop better understanding of Korea such as Korean language, economy, society, laws, and etc. The program is aimed at assisting them with integration and helping them stand on their own feet. There is a steady growth in the number of KIIP participants. For foreigners living in Korea including migrant workers, overseas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international students, marriage immigrants, KIIP is a good opportunity to have better understanding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 total of 308 operational organizations are implementing the program nationwide. The KIS accepts tele-education system and locals' view on education to assist more foreigners with education.

The program facilitates immigrants' learning Korean language and culture, helping them better communicate with Korean nationals and be easily assimilated into Korean society. All kinds of support policy for foreigners in Korea are standardized by the KIIP. For the immigrants who complete the program, a wide range of incentives are provided such as being exempt from the requirement to take the written test and interview for naturalization, prompting more voluntary and active participation of immigrants in the program.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혜택 Benefits of completing KIIP

- 국적필기시험 및 국적면접심사 면제
- Exemption from the written test and interview when applying for naturalization
- 국적심사 대기기간 단축
- Expediting adjudication of the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의 거주 자격(F-2)변경 시 가점(최대 25점) 부여 등 Granting additional points (up to 25 points) when points-based highskilled foreign professionals apply for visa transfer to status of resident (F-2)
- 일반 영주자격(F-5) 신청 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Exemption from the requirement to prove Korean language competence when applying for status of permanent resident (F-5)

The program is designed by the KIS for immigrants' successful settlement in Korean society. Operational organizations are also designated and commissioned by the KIS to run the program. All immigrants and foreign nationals who have acquired Korean citizenship can voluntarily apply for the program. The application is available online only at www.socinet.go.kr (Soci-Net website.) For the completion of the program, register for membership at Soci-Net website, and sign up for a class at the MOJ- designated operational institution you wish to take the class, then participate in the program according to the schedule of your assigned institution.

You will be tested before being assigned to a class. A pre-program level test is used to assess your basic understanding of Korean language and society. The test results determine for which level you are best suitable. After level placement, you can take the course of the assigned level. The KIIP is made up of 6 levels from level 0 to level 5. The first four courses from level 0 to level 4 are o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nd the top level course of Understanding Korean society is about Korean lifestyle. Instruction hours for each level are different. At the end of each level, there is a test for determining if the participant should retake the course or not. Those who pass the test qualify to progress to the next level. If you pass the mid-term test of the KIIP-Korean Language TEST (KIIP-KLT) after the language training, you are gualified to take the course of Understanding of Korean Society. Those who complete the level 5 course gualify to take the Korea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ptitude Test (KINAT), the final test of the KIIP. Participants that pass this are certified to complete the KIIP and receive a certificate.

- 국민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영주자격(F-5)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Exemption from the requirement to prove Korean language competence when spouses or minor children of Korean nationals apply for status of permanent resident (F-5)
- 외국인근로자의 특정활동(E-7) 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Exemption from the requirement to prove Korean language competence when migrant workers apply for visa transfer to status of foreign national of special ability (F-7)
- 장기체류 외국인의 거주(F-2)자격 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Exemption from the requirement to prove Korean language competence when long-term foreign residents

조기적응프로그램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장기체류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초법과 제도 기초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며 입국 초기 단계에서 법, 제도, 문화의 차이로 인한 부조화, 이질감 및 고충을 해소 하고 건전한 국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2009년에 최초로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시행되다가 2013년 10월부터 모든 이민자로 확 대되었으며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낯선 외국인에게 한국의 기초법·제도뿐만 아니 라 출입국 관련 법령, 생활정보 등을 해당 외국어로 제공하는 교육과정이다.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외국인유학생, 중도입국자 녀, 외국인연예인(호텔, 유흥업소 종사자), 밀집지역 외국인을 대상으로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결혼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결혼이민(F-6) 자격 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체류, 국적 등 출입국 관련 법령, 기초생 활정보 및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 등에 대해 안내하며 선배 결혼이민자와 만남을 추 진한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2년을 부여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외국인 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 지 원 민간단체 등에서 3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사회통합정보망에 회원가입 후 프로 그램 신청을 할 수 있다. 외국국적동포 조기적응프로그램은 방문취업(H-2)사증 소지자, 방문 취업제 기술교육생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체류, 국적 등 출입국관 련 법령, 기초생활정보 및 동포지원 정책 등에 관해 안내하며 범죄피해예방에 관 한 교육을 실시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동포교육지원단 등 교육위탁기관 등에서 교육기관에 따라 매일 또는 매주 프로그램을 3시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 으며 사회통합정보망에 회원가입 후 프로그램 신청을 할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 대상자는 외국인등록 시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체류유형의 조기적응프로그램도 체류, 국적 등 출입국 관련 법령, 기초생활 정보 등 사회적응정보를 안내하고 체류유형별로 인권침해예방(외국인연예인). 미

Initial Adjustment Support Program for Immigrants

래진로(외국인유학생) 등 특수한 내용을 제공한다

Initial Adjustment Support Program for Immigrants is aimed at providing information on basic laws, system and daily life in Korea necessary to adapt to Korean society. Any long-term immigrants in Korea are eligible for the program. It is designed to support successful settlement of foreign nationals by minimizing their inconvenience and difficulty in becoming part of the community due to cultural, legal, and systematic difference in the initial stage of arrival. It was in 2009 when the program was launched only for immigrants by marriage. In October 2013, it was expanded to include all immigrants. The program provides participants who are not familiar with Korean language and culture with education on basic knowledge of Korean laws and system, immigration legislation, daily living information, etc. The lectures are provided in the participant's language of preference.

The program is up and running for marriage-based immigrants, ethnic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international students, immigrated children, foreign celebrities (including hotelier and those who work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and foreign nationals in concentrated residential areas. Foreigners who came to Korea as a marriagebased immigrant with an F-6 visa are eligible for the Initial Adjustment Support Program for Marriage Immigrants. The program provides an introduction to immigration laws regarding residence and nationality, support policy for immigrants by marriage, daily life information and etc., promotes meeting of marriage-based immigrants with others who have gotten married to Korean nationals ahead of them. Those who complete the program are granted 2 years of stay when applying for the first visa extension. The 3-hour course is run in the Resident Center for Foreigners,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private organizations for supporting foreigners. The application for the program is available after registration at the Soci-Net website.

Initial Adjustment Support Program for Ethnic Koreans of Foreign Nationality is designed for Work and Visit (H-2) visa holders, technical trainees of Working Visit System to be informed of immigration laws regarding residence and nationality, ethnic Koreans support policy, daily life information, and etc., and to get educated on crime prevention. The daily or weekly 3-hour course is available at consigned educational institutions including the Immigration Office (branch office) and the Education Support Organization for Ethnic Koreans. The time schedule may differ depending on the institution you take the program. The application for the program is available after registration at the Soci-Net website. Those who are subject to this program should submit a certificate of the program when registering as an alien.

Initial Adjustment Support Programs for other visa holders are also in place to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such as immigration laws regarding residence and nationality, daily life information to support their successful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Depending on immigrants' visa status, special education fit to their needs is provided such as measures to prevent human rights infringement for foreign celebrities and career advice for international students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국제결혼 관련 제도 및 현지 문화와 관습, 결혼사증발급 절차 유의 사항 등을 설명함으로써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국제결혼자가 다른 문화 와 환경에서 성장한 배우지를 잘 이해하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프로그램이다. 국제결혼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제결 혼을 희망하는 국민은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외국인배우자 초청이 가능하다.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는 최근에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문제가 한 가 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에 국제결 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바람직한 국 제결혼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동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프로그램 이수대상자는 우리 국민 중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의 국민과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거 나 이미 국제결혼을 한 상태에서 외국인배우자를 초청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법 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국민과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내국인은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만 결혼이민(F-6)사증발급 신청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 서 교제한 경우,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배우자의 임신 · 출산 그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수가 면제된다.

프로그램 운영 과정은 3시간으로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 문화, 예절정 보 등에 관해 소개하고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국제결혼 관련 정부정 책을 소개하며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 및 피해사례와 같은 국제결혼 이민자 나 한국인배우자의 경험담 등을 소개한다. 매주 또는 격주 수요일에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이민통합지원센터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며 사회통합 정보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에 프로그램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The 3-hour lecture provides participants with information on national system, culture, etiquette of native country of his/her spouse, government's policy on international marriage such as procedures for issuing marriage certificate and standard for visa screening. Personal International Marriage Guide Program anecdotes of Korean nationals and foreign spouses about their International Marriage Guide Program provides information on experiences of immigrants counseling, and any loss or damage are also International marriage related policies, culture and customs of shared. You can take the program on every or every other Wednesday spouse's country of origin, marriage certificate issuance procedures, and other things to note to Korean nationals who are preparing for at places in the 15 Immigration Offices nationwide designated by the Immigration and Integration Center. To take part in the program, register international marriages. It aims to help them better understand their at the Soci-Net website and apply for the participation. potential spouses who were born and raised in a different culture

개가 있으므로 가까운 사무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 132 홈페이지 www.klac.or.kr

and environment, and to assist them in building a happy mandatory for Korean nationals who want to get married to a foreign citizen. Only those who complete the program are allowed to bring their spouse to Korea.

With a growing perception of marriage immigrant problems as a national task beyond family affairs, the program is designed by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KIS) to develop a right understanding of and minimize the side effect of international marriage, and to assist in building a desirable and happy family.

Korean nationals who are preparing to get married to a foreigner from 7 countries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China, Vietnam, Philippines, Cambodia, Mongolia, Uzbekistan, and Thailand) or who wish to bring his/her foreign spouse to Korea are eligible for the program. In order to proceed the application for a Marriage Migrant (F-6) visa of the potential spouse from the 7 designated countries, a Korean national should complete the program. However, there are some cases where the completion of the program is exempted. Those cases include when the foreign national dated with the Korean who is inviting him/her during his/ her legal residence of 91 days or more in Korea, when the international couple started dating while their stay of 45 days or more in the country of the foreign spouse or a third country for study or work abroad, and when the need for humanitarian considerations is acknowledged such as pregnancy and childbirth of female spouse of a Korean husband.

*외국인, 결혼이민자 · 귀화자 대상 무료소송대리 서비스 Free litigation representatives services for foreigners, married immigrants, and naturalized Koreans

대하법률구조공단은 원활한 사회통합을 위해 월평균 수입 260만 원 이하의 국내 거주 외국인과 소득과 상관없이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에 대해 무료로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서비스를 제공한 다. 2014년 기준, 체불임금청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이혼,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 신청이 가장 많았다. 다른 법률문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공단 사무소는 전국에 130

대한민국 출입국관리 솔루션: 우리나라 출입국관리의 현대화에서부터 글로벌 수준까지의 발전 방향

글 이상후 ㈜시스워 대표이시

자동출입국심사대는 2008년 1세대 모델을 시작으로 2012년 2세대, 2014년 3세대 모 델을 거쳐 2015년 4세대 모델로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현 4세대 모델의 가장 큰 특징 은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이용 편리성을 높였으며, 부드러운 느낌을 전달하는 흰색의 세련된 슬림바 디 디자인을 채택하고, 시스템 모듈화로 인한 유지보수 편의성 증가와 시스템 안정성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주 요 기능으로는 승객의 여권정보 확인, 지문정보 확인, 규제자 확인, 소지 화물 감지, 문제 발생시 알림 기능 등이 있다. 2008년 처음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설치할 때만 해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시스템으로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 편의를 위한 솔루션이였지만 운영자와 사용자 모두 생소함을 극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단지 첨단 솔루션의 도입 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체계적인 운영방안이 어우러졌을 때 비로소 안정적인 출입국 운영이 가능할 수 있었으며, 그 체계 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주)시스원이 인천국제공항에 구축한 Sentry 자동출입국심사대는 신속하고 정확한 출입국심사를 자동으로 진행해주는 시스템이다. 장점으로는 여행객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면 기존 출입국가운터에서 심사관을 통해 심사받던 것보 다 심사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기존 출입국 심사는 오랫동안 줄을 서서 기다린 후 심사관이 심사를 진행 하지만, Sentry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면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출입국심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이는 여 행객 1인당 평균 약 12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뿐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여행객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심사를 끝낼 수 있어, 면세점 쇼핑이나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쉴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주)시스원의 Sentry는 출입국심사, 자동출입국심사대, 외국인관리, 바이오정보관리, 사전승객정보관리 시스템과 출 입국시스템 장비로 이루어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모두 포함하는 출입국관리시스템 패키지로 주로 공항터미널에 구축되어 여행객들의 편의를 직접 돕고 있으며, 여행객의 여권정보, 지문, 안면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출입 국심사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효율적으로 승객정보 관리가 이루어져 국경보안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주)시스원은 국내외 여러 공항과 항구에 Sentry 자동출입국심사대를 구축해왔으며 그 대표적으로 인천국제





을 하고 있다



품질을 보장한다.

공항에 현재까지 총 72대를 설치하였고, 6년 연속으로 유지보수 및 운영을 맡아 해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국제공 항협의회(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가 매년 실시하는 세계공항서비스평가(Airport Service Quality)에 서 10년 연속 1위(2005 ~ 2014)를 차지하였는데, 출입국심사 환경 부분이 평가 기준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Sentry 자동출입국심사대가 쾌적한 심사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하였다. (주)시스원은 인천국제공항 외에도, 김포공항, 제주공항, 김해공항, 청주공항, 인천항, 부산항에도 Sentry 자동출입국심사대를 구축하였고, 해외 사례로는 2014년 몽골 징기스칸 공항에도 구축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미국, 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Sentry와 유사한 자동출입국심사대가 이미 시스원이 납품하기 이전부터 납품되고 있었 다. 하지만 Sentry는 10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이 사용하고 있다는 레퍼런스와 오랜 시간의 노하 우와 경험으로 축적된 기술력을 앞세워 선진국의 제품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중동, 남미, 동남아 등의 국가에서 시스원의 출입국 솔루션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를 해외수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하여 많은 투자와 노력

(주)시스원(대표이사: 이상훈, 이갑수)은 1967년 KCC정보통신 기술지원부에서 출발하여 올해로 40년 IT서비스에만 전념한 한국 유일의 토종 IT infra Pruducts 판매 및 서비스 업체이다. 2007년 시스원의 역량이 모아진 서비스 브랜드인 PRIMOS를 선보였으며 One-Stop 서비스 Total IT 인프라 서비스를 잘 짜여진 기술진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 유통부터 통합 이웃소싱 서비스까지 고객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